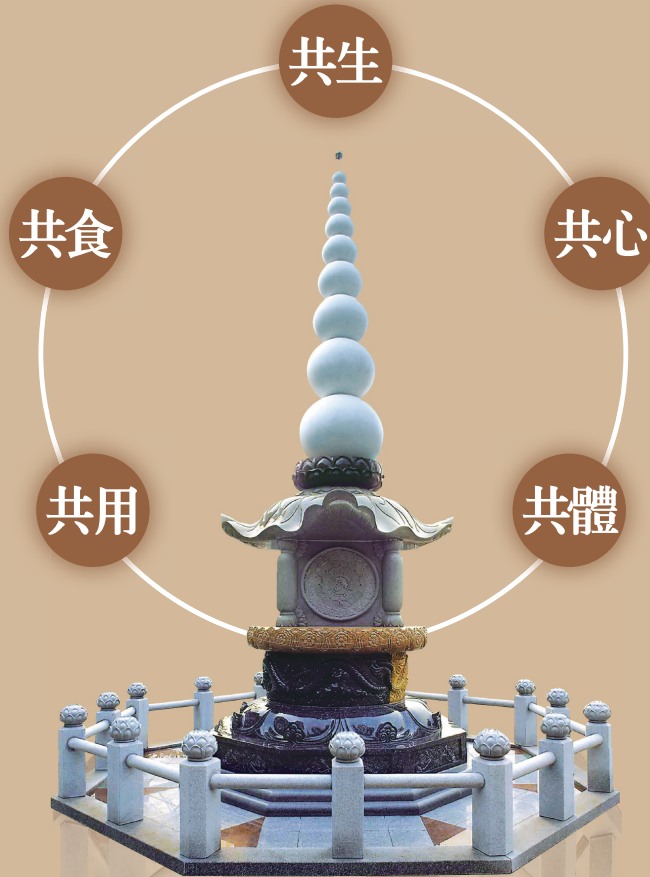


제16회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

2023년 9월 16일(토) 오후 1시 30분~6시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



참으로 자기 근본을 믿는 마음은
나라는 아짐을 놓여버리는 마음이다



대행선연구원
THE CENTER FOR DAEHAENG-SEON STUDIES

한 · 마 · 음 / 주 · 인 · 공 / 자 · 성 · 불

제16회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



불기 2567(2023)년 9월 16일(토) 오후 1시 30분~6시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

You Tube 유튜브 한마음선원 채널 생중계

<https://www.youtube.com/user/HanmaumTemple>

제16회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

개회식

사회 : **최 원 섭**(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집전 : **혜안스님**(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개 회
	삼귀의례
	대행선사 뜻풀이 반야심경 봉독
13:30~13:50	인사말씀 / 혜선스님 (대행선연구원 원장)
	환 영 사 / 혜수스님 (한마음선원 이사장)
	공지사항
	사홍서원

학술발표 (주제별 발표 30분 / 10분씩 2인의 논평 / 40분 토론)

좌장 : **안성두**(한국불교연구원장)

	제1주제 『한마음요전』에 나타난 계바라밀의 고찰
14:00~15:30	발 표 / 법장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논 평 1 / 금강스님 (해인사 율학승가대학원장)
	논 평 2 / 이지량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15:30~15:40	휴식
-------------	----

	제2주제 주인공 원리와 관법의 상관 구조 고찰
15:40~17:10	발 표 / 이상호 (서강대 박사)
	논 평 1 / 윤종갑 (동아대 초빙교수)
	논 평 2 /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한마음선원 단체 소개

17:20~17:50	본원 선법합창단 김진용 단장
-------------	------------------------

폐회식

17:50~18:00	마무리 인사 / 혜솔스님 (한마음선원 주지)
-------------	---------------------------------

자료집 순서



삼귀의	… 7
대행선사 뜻풀이 반야심경	… 8
사홍서원	… 12
제1주제 『한마음요전』에 나타난 계바라밀의 고찰	… 13
• 발 표 법장스님(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 14
• 논 평 1 금강스님(인사 율학승가대학원장)	… 48
• 논 평 2 이자량(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 54
제2주제 주인공 원리와 관법의 상관 구조 고찰	… 61
• 발 표 이상호(서강대 박사)	… 62
• 논 평 1 윤종갑(동아대 초빙교수)	… 96
• 논 평 2 최원섭(대행선연구원 연구원)	… 104

삼귀의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대행선사 뜻풀이 반야심경



두루 차고 깊은 지혜 한마음은 밝았으니
저세상과 이 세상을 두루 살펴
자재로이 행하시는 한마음이
죽은 세상 산 세상 한데 비추어 보시니
모든 중생들은 본래부터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하며
고정됨이 없이 나투고 화하여 돌아가건만
그것을 몰라서 일체 고히의 길을 걷나니라.

사리자여,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고
마음은 모든 물질적 현상과 다르지 않나니
모든 물질적 현상은 곧 한마음으로 좇아 있나니라.
느끼는 생각과 행하는 의식도
또한 둘이 아니어서 이와 같나니라.

사리자여,
우주 생명과 모습은
본래 생겨났다 없어졌다 함도 없으며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으며
늘지도 줄지도 앓느니라.

이런고로 고정됨이 없는 차원의 물질도
둘이 아닌 까닭에 없나니
감각, 지각, 의지적 행동, 인식 작용도
따로 없느니라.

눈, 귀, 코, 혀, 몸, 뜻도
따로 고정됨이 없으며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법도
따로 고정됨이 없으며
보이는 세계와 의식세계까지도
따로 고정됨이 없느니라.

죽지 않는 것도 죽는 것도
또한 둘이 아닌 고로 없으며

높고 죽음도 없고
또한 높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느니라.

온갖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까지도 없으므로
지혜도 깨달음도 얻을 바가 없으니
없는 까닭은 일체 고정된 것이 없이 造化하여
찰나찰나 나투는 까닭이니라.

자유인의 한마음은
깊은 무無의 세계에 회전하며
일체 걸림이 없느니라
마음에 걸림이 없는 고로 두려움이 없으며
뒤바뀐 헛된 꿈 같은 생각을 떠나서
본래부터 영원한 밝음의 구경에 이르렀나니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마음자리를 깨달아
가장 높고 밝은 지혜를 얻어
생사를 초월하고
자유자재의 경지를 성취하셨나니

마땅히 알라

깊은 미지의 지혜로운 한마음이야말로

가장 신비하고 가장 밝고 가장 높고

가장 당당한 위없는 심경이므로

이 깊은 미지의 주문은 진실하여

허망치 않음을 알라.

일체 고난에서 벗어나리라.

이에 깊은 한마음을 깨닫는

주문을 설하노니,

발 없는 발로 길 없는 길을

어서어서 벗어나세

우리 함께 벗어나세

이승 저승 없는 마음

어서어서 벗어나세

한마음의 깨달음은

그대로 여여하게 밝았으니

“우리 함께 어서어서 벗어나세” (3번)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녹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제1주제

『한마음요전』에 나타난 계바라밀의 고찰

• 좌장 _ **안성두**(한국불교연구원장)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연구원과 교수를 거쳐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활동하다가 퇴직하였다. 현재 한국불교연구원 원장. 연구 분야는 유식사상과 여래장 사상이며 이와 관련된 많은 논문이 있다. 관심분야는 인도불전의 번역으로서 『보성론』, 『보살지』, 『성문지』 등을 산스크리트에서 번역하여 출판하였고, 『유가사지론』을 근간 출판할 예정이다.

발 표 **법장스님**(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논평 1 **금강스님**(해인사 율학승가대학원장)

논평 2 **이자랑**(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한마음요전』에 나타난 계바라밀의 고찰

법장스님(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일본 하나조노花園 대학에서 “『범망경』 주석사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조계종 교육아사리이면서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이며,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의 전문연구원이다. 『보살계에 나타난 Well Dying』, 『보살계관의 변용에 관한 고찰』, 『가야불교의 보살계에 관한 고찰』 등의 논문이 있으며 2022년 불이상을 받았다.

- I. 서론
 - II. 대승보살계의 이념
 - III. 대행스님의 행장 속 보살행
 - IV. 대행스님의 계바라밀
 - V. 마치며
-

초록

본 연구는 대행스님의 행장 속에 나타난 보살행과 전법을 계율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계행, 즉 계바라밀의 실천을 고찰하려 한다. 이에 『한마음요전』을 중심자료로 하여 스님의 행장과 이야기를 보살계를 통해 해석하여 스님의 삶 속에 계행이 함께 공존하며 중생을 위한 보살행이 이루어졌음을 규명하겠다.

종전의 연구에서는 스님의 전법과 포교가 주된 연구과제였으나, 불교의 계정체 삼학의 기본인 계행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그 모습은 보살계 속에 담긴 유연하고 대승적인 계바라밀이었음을 확인하겠다.

연구의 순서로는 보살계의 대표인 『유가사지론』과 『범망경』에 나타난 실천행과 계율관을 먼저 확인하고, 그것의 주석서에서 해석한 내용까지 확인하여 보살계의 시대성과 중생을 위한 실천을 파악하겠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대행스님의 행장 속 모습을 비교하여 스님의 전법과 포교가 한 개인의 모습을 넘어 대승불교의 이상적 존재인 보살로서의 계바라밀이 겸수되었음을 밝히겠다.

이러한 본 연구의 과제는 향후 대행스님의 행적과 포교를 분석하는 것에 있어 보다 깊이 있는 율장 및 경장의 증거를 제시할 것이며, 현대 불교에서의 포교방법론에 있어서도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주제어

대행스님, 한마음요전, 계행, 계바라밀, 보살계, 계율

I. 서론

대행스님(이하 대행)은 근현대 한국불교의 중흥과 전법에 앞장선 인물이다. 특히 불교를 민간에 포교하고 생활 속에서 불교를 실천할 수 있도록 수행방편으로 이끈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회자되며 많은 이들의 귀의처가 되고 있다. 이러한 대행의 삶과 수행방편 그리고 가르침을 하나에 정리해 둔 것이 『한마음요전』이다. 『한마음요전』은 한 권의 책이기는 하지만, 한 인물의 삶과 구도기,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간절함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다른 전기가 인물의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 반해 『한마음요전』은 대행의 실제 육성 이야기와 그에 얽힌 에피소드를 그대로 담고 있어 그것을 매개체로 대행의 모습을 접할 수 있고, 읽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그 순간에 함께 수행을 닦고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마음요전』에 나타난 대행의 삶과 수행방편을 보살의 바라밀로 해석하고 고찰하겠다. 대행의 삶에는 당시 한국의 시대상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일제식민지와 6·25전쟁을 거치며 나라 전체가 찢어지게 가난해져 간신히 하루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일 정도로 여겨지다가 점차 먹고 살 수 있게 되며 자신만을 찾고 오히려 스스로를 놓치는 모습으로 변모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다. 대행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의 싸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평초와 같이 의지처 없이 떠돌던 가난의 삶 속에서 자칫 주저앉을 수도 있으나 오히려 부자와 가난을 만들어내는 의정을 바라보고 차별상을 떠난 마음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모든 중

생을 평등하게 바라보고 베풀기 위한 도깨비감투를 꿈꾸며 보살로서의 초발심을 세운다.

이러한 대행의 모습은 홀로 뛰어나기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곁에서 이끌어준 선지식과 역경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모든 이들을 감싸줄 수 있는 대비심을 어머니로부터 받고,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 항상 마음에서 자문해준 아버지의 존재, 그리고 자신을 죽여 스스로를 바라본 한마음의 자리를 일깨워준 한암스님(이후 한암) 등 여러 인연의 가르침이 대행의 삶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치병으로 대표되는 대행의 수행방편이 결코 병을 치료하는 신비적 힘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한 일깨움과 이끌어 줌으로 마음의 치료를 행했던 보살의 바라밀이었음이 『한마음요전』에 담겨 있다.

이러한 대행의 삶은 중생을 위한 보살의 바라밀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중생을 위해 방편을 행하고 인연에 따라 유연하게 가르침을 설해주는 모습에서는 지범개차持犯開遮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계율에 관해 행동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 실천을 이끌어내는 범문은 보살계의 작지계作持戒적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마음요전』에 나타난 대행의 삶을 보살계의 입장에서 확인하고 그의 행적이 보살의 계바라밀에 상응하는 것임을 고찰하겠다.

II. 대승보살계의 이념

『한마음요전』에 나타난 대행의 삶을 계율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그의 출가와 수계에 관해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대행이 출가한 시기의 한국불교는 시대와 더불어 황폐해져 있었고, 구족계 수계와 율장에 의한 승가운영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대행의 수계에 관해서도 삼사칠증에 의한 계단수계나 명확한 구족계의 수지를 논하기는 어렵다. 『한마음요전』에 의하면 대행의 출가는 해방이 된 1945년 18세에 흑석동을 떠나 부산에서 1년 정도 군복 수선과 식당을 한 이후 상원사로 옮겨가 한암의 곁에서 삭발을 한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20살이 갓 넘은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때는 그저 삭발만을 한 수행자의 모습이었고 이후 1950년 3월 27일(음력) 다시 한암에게 정식 수계를 받고 출가자가 된다. 이때 앞서 한암의 제자 2명이 비구계를 받고 이어서 대행도 수계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율장에 의거한 삼사칠증의 수계로 보기는 어렵다.¹⁾ 그리고 『한마음요전』에서는 이때의 수계를 사미니계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²⁾ 그러나 당시의 시대상에 갖춰진 계단수계로 출가를 한다거나, 이후의 관점으로 수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기에 이 시기에 대행은 한암을 계사로 수계를 하여 출가

1) 『한마음요전』(2019), 49-56.

2) 『한마음요전』(2019), 137.

수행자로 거듭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³⁾ 이후 대행은 승적과 무방하게 수행을 이어갔으나 시대가 변하며 종단이 설립되고 승려의 수계와 자격이 논해지며 한암의 제자 탄허스님에게 권유를 받아 승적을 회복한다. 이에 종단에서는 1960년 사미니계를, 1961년 비구니계를 받은 것으로 승인한다.⁴⁾ 이처럼 대행의 출가와 수계에 관하여 형식에 얽매어서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비록 기록에 의한 수계가 늦어지기는 했으나, 그동안 이루어진 수행과 전법은 어느 수행자보다 뛰어났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고 이끌어왔다. 그렇기에 대행의 출가와 수계에 관하여 율장에 의거하여 논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대행이 행하였던 수행자로서의 삶과 전법을 보살의 모습으로 보고 보살계를 통해 논해야 한다. 이에 이후로는 대행의 삶 전체에 나타난 보살행에 중점을 두고 보살계의 입장에서 『한마음요전』의 내용을 확인하겠다.

보살계는 승가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율장과는 성격이 다르다. 특히 율장과 같이 각 잘못에 대한 명확한 처벌이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승가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 불교인이 지녀야 할 보리심의 근본이다. 이러한 보살계의 이념에 대해 천태지의天台智顓(이하 지의)는 『보살계의소품薩戒義疏』(이하 『천태소』)에서 “보살계란 선을 움직이는 첫 번째 장章이고, 악을 물리치는 맨 앞의 진陳이다. 곧은 길(보살도)로 귀의해야 생의 근원을 다할 수

3) 『십송율十誦律』 권56에 ‘자연득自然得·견제득見諦得·자서득自誓得·논의득論議得·변오득邊五得·수중득受重得·견사득遣使得·선래득善來得·삼귀득三歸得·갈마득羯磨得’의 10종 수구受具가 설해진다. 이 중 4번째 논의득은 문답득이라고도 하여 스승의 물음에 수순하여 대답을 함으로써 법이 이어짐과 함께 수계도 이루어진 것으로 여긴다.(T23.410a09, “蘇陀隨順答佛論故得具足戒.”) 한암과 대행 사이의 수계를 율장에 의거해 파악한다면 논의득의 수계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4) 『한마음요전』(2019), 138.

있다”고 설명한다.⁵⁾ 이는 칠불통계七佛通戒와 동일한 내용으로 모든 부처님의 계가 설하는 것이 보살계와 동일하며 그를 통해 악을 그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토대임을 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수법장賢首法藏(이하 법장)은 『범망경보살계본소梵網經菩薩戒本疏』(이하 『법장소』)에서 “일체제불의 본원이며, 보살이 행하는 것의 근본이다. 만약 이 계법이 없다면 단 한 명의 보살도 불도를 이룰 수 없다”고 하여,⁶⁾ 보살계로 인해 불교수행자가 되며, 그때 비로소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는 불교수행의 시작이 계정해 삼학의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계를 통해 불교인이 되어 불도수행을 닦아 깨달음이 성취되는 것을 설하는 것이다. 믿음을 갖고 불교에 입문하기도 하지만, 모든 불교의례의 첫 번째에 삼귀의를 두고 있듯이 우선 불교에 귀의하고 수행을 닦는 것이다. 그리고 불교에 귀의한다는 것이 수계를 하여 불교적 삶을 실천하고 그 안에서 수행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이하 『영락경』)에서는 “일체중생이 처음 삼보의 바다에 들어감에 있어 믿음이 근본이 되고, 불가에 머무르게 됨에 있어 계가 근본이 된다”고 하여,⁷⁾ 계를 근본으로 불교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설하고 있다.

이처럼 보살계는 불교 수행의 근본이며 불교인이 되기 위한 토대이다. 이러한 점은 율장과도 동일하지만, 보살계는 그 성질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원효元曉는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이하 『요기』)에서 “보살계는 흐름을 되돌려 근원으로 돌아가는 큰 나루터이며, 그릇됨을 버리고 바름으로 나

5) 『천태소』(T40, 563a), “菩薩戒者, 運善之初章, 却惡之前陣. 直道而歸生源可盡.”

6) 『법장소』(T40, 602c), “一切諸佛之本源行菩薩者之根本. … 若無此戒法無一菩薩得成佛道.”

7) 『영락경』(T24, 1020b), “一切衆生初入三寶海以信爲本, 住在佛家以戒爲本.”

아가는 긴요한 문이다”라고⁸⁾ 하여 지의와 유사하게 보살계를 설명한다. 여기서 ‘큰 나루터’라는 표현은 비록 보살계가 깨달음을 위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나루터를 건너면 배에서 내려야 하듯이 계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수행의 전부로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원효는 『범망경보살계사기梵網經菩薩戒私記』(이하 『사기』)에서 “계율의 체를 논하면 인연에 따라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인연을 찾아봐도 계율의 자성은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인연을 따라 생긴 계율은 비록 있는 것은 아니나, 토끼 뿔이 없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다”라고 거듭 보살계의 성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⁹⁾ 원효는 보살계를 인연생因緣生으로 보고, 인연에 따라 생긴 것이기에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생겨난 인연조차 없는 것이 아니기에 계를 따라야 한다고 설한다. 이는 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행동에 제약을 받거나 중생제도를 망설이는 것을 금하고, 계를 경시하여 불교인으로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르침으로 보살계의 지범개차持犯開遮를 설한 것이다.

이러한 보살계의 성질은 그것을 이루고 있는 계체戒體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계체는 계의 본체라는 의미로 그것의 존재성질에 의해 해당 계율의 수계와 지계에 차이가 생겨난다. 율장의 계체는 일반적으로 색법계체色法戒體라고 하여 불가견不可見의 물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에 비해 보살계의 계체는 대승만의 색법계체인 성무작가색性無作假色, 심법계체心法戒體, 비색비

8) 『요기』(T45, 918b), “菩薩戒者, 返流歸源之大津, 去邪就正之要門也.”

9) 『사기』(X38, 279b), “論戒體者, 從因緣生故. 推求於因緣, 戒自性不可得, 故非有. 從因緣生, 戒雖非有, 而不同於兔角無, 故言非無.”

심非色非心 등이 논해진다.¹⁰⁾ 명칭에 차이가 있으나 보살계는 마음을 본체로 하는 심법계체로 대표된다. 그렇기에 다른 계율과 달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처벌 여부를 논하는 것보다 그것이 발생한 원인인 범계심犯戒心을 주된 요인으로 보고 판단한다. 그리고 마음이 계체이기에 전계사로부터 계를 받는 의미의 수계와 달리 보살계는 불성과 함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계체를 꺼낸다는 의미에 가깝다. 대승불교에서의 마음은 심식心識의 의미를 넘어 그 자체에 보살의 보리심이 담겨 있고, 그를 통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이다. 이에 법장은 다음과 같이 믿음에 의해 마음을 일으키면 그로 인해 계를 얻어 출가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한다.

자신에게 불성의 법이 있는 것을 믿기에 이것은 곧 반드시 당래에 성불한다는 의미이다. ... 이 믿음을 일으키면 곧 진리에 들어가는 보리심을 일으키게 된다. 이 때문에 이 마음이 곧 계를 얻는다. 그렇기에 『무구칭경』에서 “보리심을 일으키면 즉 이것이 출가이며, 이것이 바로 비구의 성품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한다.¹¹⁾

그리고 마음이 곧 계와 동일한 것이기에 지의는 『영락경』을 인용하여 “모든 선인이나 범부의 계는 모두 마음을 체로 한다. 마음은 다함이 없기에 계도 또한 다함이 없는 것이다”라고 한다.¹²⁾ 이 구절은 보살계에서의 일득영불

10) 법장(2023), 449-450.

11) 『법장소』(T40, 607a), “謂信己身有佛性法故, 即是定當來成佛之義. ... 起此信即是發入理菩提心. 此故此心即是得戒. 故無垢稱經云, 發菩提心即是出家.”

12) 『지의소』(T40, 566a04), “瓔珞經云, 一切聖凡戒盡以心爲體. 心無盡故戒亦無盡.”

실—得永不失의 토대가 되어 “보살계에 수계는 있으나 사계(捨法)는 없다”고¹³⁾ 설명되어 마음과 떨어져 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마음이 있는 그 상태가 그대로 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¹⁴⁾

이러한 심법계체의 특징은 보살계를 일정한 형태로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 대한 보살행에 따라 유연성을 가질 수 있고, 비록 계의 항목이 존재하지만 방편으로서 그것을 초월하는 형태와 해석으로도 발전한다. 그렇기에 불교 초기부터 전래되어온 율장과 달리 보살계는 하나의 형태라고 보기가 어렵고 시대에 따라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인도 유래의 「유가계瑜伽戒」와 중국 찬술의 『범망경梵網經』이 있고, 여기서 파생된 세속오계世俗五戒, 『점찰경』의 귀계멸참歸戒滅懺, 원돈계圓頓戒, 나아가 호국불교 등 시대와 중생을 위한 발전이 거듭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보살계는 마음을 토대로 하기에 일정한 형식에 맞춰 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연민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보살계라는 명칭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성립 인연에 보다 중점을 두고 보살행의 토대로 작용될 때 비로소 바른 지계행, 즉 계(시라)바라밀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계바라밀에 대해 원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품경』에서 “죄와 죄가 아닌 것을 얻을 수 없기에 이를 시라바라밀을 갖추었다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만약 어떤 이가 계는 없는 것이

13) 『영락경』(T24, 1021b07), “菩薩戒有受法而無捨法.”

14) 법장(2023), 459.

아니기에 있는 것이라고 집착한다면, 비록 계를 잃지는 않지만 계의 참된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약 어떤 이가 계는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없다고 생각해 집착한다면, 계의 인과법을 어긴 것이기에 즉 계를 잃게 된다. 이 양변을 멀리하기 위해 중도에 합치한다. 그렇기에 ‘비유비무’라고 하는 것이다.¹⁵⁾

이러한 대승보살계의 이념은 보살의 바라밀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에 지지止持보다는 실천의 작지作持를 중시하고, 그 실천의 대상이 자신이 아닌 중생이기에 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한 변화까지도 허용한다. 이후로는 대행의 삶에 나타난 수행과 전법이 보살의 바라밀이었음을 확인하고, 대승보살계의 이념에 입각하여 확인하겠다.

Ⅲ. 대행스님의 행장 속 보살행

『한마음요전』은 대행의 출가에서부터 수행, 가르침, 전법, 방편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당시의 모습과 마음상태, 그리고 인연된 이들과의 관계로 풀어 이

15) 『사기』(X38,279b), “大品經云, 罪不罪不可得故, 是名具之尸羅波羅蜜故. 若有人執非無門而爲有者, 雖戒不失, 而不知戒實相, 故即成犯. 若有人執非有門而爲計無者, 戒因果法誹機故, 即成失戒. 爲欲離此二邊, 契會中道. 故言非有非無也.”

야기하고 있다. 한 인물의 일대기를 정리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의 여러 모습은 누구라도 그 상황에 이입되어 자신이라면 어찌하였을까 질문을 던지게 한다. 그리고 첫 장에서부터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대행과 함께 성장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함께 출가하고 수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야기 속에 언제나 사람과의 관계가 들어있고, 그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함께 고민했는가를 간접 경험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마음요전』에 나타난 대행의 행장은 하나의 성장스토리와 같이 느껴진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비교적 넉넉했던 집안은 한순간에 가세가 기울어 거리로 나왔게 되었고 간신히 하루를 살아갈 정도로 가난을 겪게 된다. 그러나 대행은 오히려 그 고생이 아니었더라면 자신이 공부할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라고 하며¹⁶⁾ 역경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인연을 맞게 된다. 충분히 가난을 원망하고 민가의 다른 집을 보며 부러움을 지닐 만도 하였으나 대행은 자신을 비롯한 다른 가난한 집들을 걱정하며 도깨비감투를 갖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싶다는 발원을 한다.¹⁷⁾ 이 도깨비감투는 대행의 삶 전체를 잇는 발보리심의 서원이라고 생각된다. 단순히 돈이나 명예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그것이 바로 도깨비감투가 되어 주는 것이고 당시의 대행의 눈에는 먹고사는 문제로 투영된 것이다. 그렇기에 이후 대행이 부산에서 군복 수선으로 모은 돈으로 차린 것이 실비 식당이었고 이 역시도 사실상 무료급식소에 가까웠던 것으로 대행의 서원인 도깨비

16) 『한마음요전』(2019), 19.

17) 『한마음요전』(2019), 24.

감투가 현실의 보살행으로 나타난 것이다.¹⁸⁾

대행의 이러한 보살심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어머니였다. 그의 어머니는 “거지가 찾아오면 당신 뭇을 내어 주고는 아예 굶으셨는가 하면, 자주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서 한 번 죽는 것인데 남한테 못되게 굴고 남의 것을 가로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셨다”고 전하고 있다.¹⁹⁾ 어머니의 이러한 가르침은 대행의 삶 그 자체를 투영하고 있고, 그가 왜 그토록 간절히 중생들을 아낌 없이 대하고 헌신하였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대행이 불교에 귀의하는 결정적 인연 역시 어머니에 의해 이뤄진다. 삶에 대한 간절함이 가득했던 대행이었으나 정작 현실은 바람 따라 이리저리 떠도는 부평초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던 중 어머니를 따라 오대산 상원사를 찾았고 이때 한암과의 만남은 대행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된다. 그토록 간절했던 삶이 바로 부처님 법이라는 그의 가르침에 의정을 갖게 되고 이후 출가자가 되는 결정적인 인연이 된다. 이러한 모든 모습에 언제나 그의 어머니가 계셨다. 한암 역시 어머니를 “여느 승려가 따라가기 어려운 분”이라고 증명하실 정도의 분이셨고²⁰⁾ 대행에게 있어 불모(佛母) 준제관음보살(准提觀音菩薩)이었다.

그리고 대행의 아버지는 가난을 물려주고 항상 꾸짖음과 학대를 하여 시련을 준 존재였다.²¹⁾ 그러나 대행은 그런 아버지를 결코 원망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상대적 존재와도 같이 여겼다. 그래서 대행의 삶에 결정적 순간에 언제나 내면의 목소리로 도움을 주었고, “죽어야 나를 본다”는 화두를 타파함

18) 『한마음요전』(2019), 46.

19) 『한마음요전』(2019), 24.

20) 『한마음요전』(2019), 37-38.

21) 『한마음요전』(2019), 20.

에 있어 그 대상을 아버지로 두어 참된 자신과의 조우를 이루게 된다.²²⁾ 이처럼 어머니에 의해 보살로서의 삶을 전해 받고, 아버지에 의해 자신을 발견한 대행은 두 분으로부터 받은 위대한 유산으로 그의 삶을 이룬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대행 역시도 사람을 우선으로 하였고,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인연으로 보아 제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인연들과의 관계는 백련사로 향하던 길이나 상원사에서의 만남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역경계의 인연을 오히려 수행이 성숙할 기회로 여겨 그것을 통한 걸음 나아가는 토대로 삼는다. 이처럼 『한마음요전』에는 여러 인연들과의 관계가 대행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것들이 초발심의 서원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님의 영향은 대행이 모든 인연들이 자신과 이어져 있는 존재이고, 그로 인해 마주하는 경계들 역시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한다. 대행은 사람과의 인연은 물론이고 청계산이나 치악산, 안양 등 자신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일체 유정과 소통하였는데,²³⁾ 이는 대행이 동체대비同體大悲로 그들을 대하였기에 그들 또한 법을 듣고 함께 수행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연법을 깨달은 대행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 안에 모든 원인이 있음을 알고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았고, 자신을 놀려대는 아이들을 향해 오히려 “너희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차림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아이들이 그런 짓을 했겠는가. 내 꼴이 그러하니 놀림감이 될 수밖에 없었고

22) 『한마음요전』(2019), 61.

23) 『한마음요전』(2019), 71.

그러니 내 탓이다”라고²⁴⁾ 하여 자신을 참회하고 그들이 악업을 짓지 않게 자비를 베풀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대행의 동체대비는 무정물로도 이어져 자신이 살기 위해 먹을 수밖에 없는 음식을 음식으로 대하지 않고 그를 통해 자신의 수행방편이 되어주고 함께 법을 닦는 존재로 이끌어준다.²⁵⁾ 그를 통해 무정물조차 자신과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어진 존재로 여긴 것으로 이는 초목국토살개성불草木國土悉皆成佛의 가르침과 같은 것이다. 대행에게 일체중생은 유정도 무정도 모두 함께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을 자신이 차별상으로 보는가 부처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발보리심과 인연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대행은 모든 이들이 고통을 벗어나 깨달음을 성취할 때 비로소 자신도 그리된다는 것에 눈뜨며, 아직 미혹한 이들을 일깨워주고 불법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자신이 원력으로 삼았던 도깨비감투를 현실화하여 보토報土를 세운다. 대행의 보토는 그가 머물렀던 흑석동, 백련사, 상원사 견성암 등 모든 공간이기도 하지만, 대행의 원력에 의해 세워진 곳은 안양시 석수동의 한마음선원이다. 대행은 개원에 앞서 공동묘지였던 터를 달래며 “우리 살림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 생명들이 죽 늘어서 있으니 차원이 다를 뿐 여기에 우리만 산다고 할 수는 없다”고²⁶⁾ 하여 영가를 천도함과 동시에 선원 대중들도 모든 존재에 대해 눈뜨고 그들과 함께 법을 닦아야 함을 설한다. 그리고 봉불식에서 “부처님의 가르치신 은혜를 갚고 모두들 스스로 등불이 되어 중생으로 하여금 자

24) 『한마음요전』(2019), 64.

25) 『한마음요전』(2019), 82.

26) 『한마음요전』(2019), 145.

비광명 속에 안주케 하자”는²⁷⁾ 한마음선원의 원력을 선언하여 일체중생이 선원을 방편의 의지처로 삼아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설한다.

한마음선원은 대행이 보살행을 실천하는 보토로서 큰 역할을 한다. 현재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수행도량이며, 수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위안을 얻고 삶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을 비롯한 다른 이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끌어주는 인드라망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한마음선원에서 대행이 펼친 보살행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치병治病이다. 대행의 치병은 백련사에서 첫 원력²⁸⁾ 이후 상원사에서 많은 이들을 구제해주었고, 그 보살행이 한마음선원으로도 이어져 보다 많은 이들이 대행을 만나 치료를 받고 본래자리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다. 대행의 치병은 하나의 신통으로도 볼 수 있으나 『한마음요전』에서 말하듯 대행에게 치병은 신통이 아닌 중생을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대행 자신도 “사람이 살다가 화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술법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심으로 해야 도인데 그 뜻을 모르고 술법에만 역점을 두어 자기 능력이라고 내세운다면 그야말로 술수에 불과하다”라고²⁹⁾ 하여 치병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필요로 하기에 그것을 행하여 고통을 없애준 것이다. 치병은 동체 대비의 방편이다. 아픈 이가 있기에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주어 그의 고통을 직접 느끼며 그 원인을 해결해준 것이다. 그렇기에 대행은 “어떻게 하느냐. 소

27) 『한마음요전』(2019), 145.

28) 『한마음요전』(2019), 100.

29) 『한마음요전』(2019), 748.

가 병이 났다는데 내가 소가 되어서 치료해 주어야지. 뱀을 건지려면 뱀이 되어야 하고 구더기를 건지려면 구더기가 되어야 하느니라”라고³⁰⁾ 하여 대상의 차별을 떠나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보살행을 치병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범부들은 묘용의 방편이 진실한 법인 줄 알고 그것만을 좇기도 하기에 대행은 치병을 행하면서도 항상 그것이 신통이나 기복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좇으면 이교도가 된다고 설하여 치병은 그저 정법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임을 일깨워준다. 이에 대해 대행도 다음과 같이 살아가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기적도 없으며 그저 중생이 미혹해서 모를 뿐이라고 한다. 치병은 그렇게 모르는 이들을 일깨워주는 방편인 것이다.

기적이란 없다. 모든 중생이 본래로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 몰라서 못 하고 몰라서 못 쓸 뿐이지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지 말라. 좁은 소견에 불과하다. ... 오히려 자유자재하지 못 하는 중생이 대다수이기에 기적이 특별하게 보일 뿐인 것이다.³¹⁾

병을 고친다는 것은 분명 특별한 작용이다. 그러나 그것에만 의지한다면 정작 살아가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신을 발견할 수 없고 자신을 지탱하는 마음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대행도 작용은 그저 방편일 뿐 정법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30) 『한마음요전』(2019), 138.

31) 『한마음요전』(2019), 421.

안수 기도나 그 밖의 수단으로 병을 고친다 하는 것은 외도에 지나지 않는다. 부처님 법은 마음으로 오고 감이 없이 오갈 수 있거늘 손으로 만져서 낫는다 함은 단 세 치만 알아도 할 수 있는 것이다.³²⁾

대행이 치병을 행하였으나 누구도 외도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가르침 때문이다. 중생이 필요로 하는 것에 보살은 모든 행을 다한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일지라도 그로 인해 중생을 바르게 이끌어준다면 그것을 잘못으로 판단할 수 없다. 대행의 치병은 그러한 방편인 것이다.

대행은 이렇게 치병으로 당장의 고통을 해소한 이들에게 그 병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설한다. 이것이 대행의 진정한 치병이다. 이에 대해 “부처님 법이란 봤으면 본 대로 그대로 투입하게 되어 있지 의학적인 방편이나 무슨 다른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³³⁾ 하여 몸의 치병은 사실 대행을 만난 그 순간에 이뤄진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병을 고쳐 준다고 하기 전에 마음 깊숙한 곳에 되돌려 놓는 도리를 알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라고³⁴⁾ 하여 병이라는 결과를 고치는 것은 그 원인이 된 마음을 고칠 때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되돌아왔을 때 자신의 삶으로 되돌아가 일상에서 불법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행의 치병은 미즈노 고젠水野弘元이 설한 사제四諦의 치병원리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미즈노는 고히란 현실의 괴로움으로 육신의 병이고, 집

32) 『한마음요전』(2019), 759.

33) 『한마음요전』(2019), 203.

34) 『한마음요전』(2019), 191.

集은 고의 원인·이유로 병의 원인이고, 멸滅은 고가 멸한 이상적 상태로 병이 치료된 건강한 상태이고, 도道는 이상에 도달시키는 바른 수단·방법으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라고 한다.³⁵⁾ 대행의 치병도 그를 찾아온 이들과 하나되어 그 원인을 치료하고, 이상적 상태로 이끌어주기 위해 병의 원인인 마음을 되돌려주는 것으로 참다운 치병을 행하였다. 그렇기에 대행의 마음이 한마음선원의 대중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져 그들의 입을 통해 “이 불당은 중생들의 병원이자 요양처이며 진리에 목말라하는 이들의 학교가 아닐 수 없다”고³⁶⁾ 찬탄되어 보살행의 증명을 받는다.

대행 역시도 “살고 먹고 입는 데 쓸 요량으로 절을 운영해서는 천만 번 부당한 일이 되느니라”고³⁷⁾ 제자들에게도 당부하며 한마음선원은 일체중생을 위한 곳이며 누구라도 이곳에서 몸과 마음을 치료받고 자신의 삶 속에서 깨달음 얻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마음선원은 대행의 보살로서의 보토이다. 그러나 그러한 곳조차도 소유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열어두는 것은 보살에게 어떠한 차별상도 없고 자신이 부처이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이 부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루의 생활에서 불교를 영위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불교가 아니라고 한다. 기복은 그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기에 대행도 “6·25 때 보니까 불상을 지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 평소에 그렇게 매달리더니...”라고³⁸⁾ 하여 간절한 순간에만 소원을 비는 불교가 아니라 “자신의 하루를 부처님의 뜻 가운데서 편안히 엮어 나갈

35) 水野弘元(2015), 195

36) 『한마음요전』(2019), 145.

37) 『한마음요전』(2019), 289.

38) 『한마음요전』(2019), 274.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바로 생활 불교이다”라고³⁹⁾ 설한 것이다.

이와 같이 대행은 보살의 바라밀을 현실에서 실천한 것이다. 홀로 깨달아 수승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가르침을 이어받아 그것을 일체중생에 그대로 전해준 것이다. 그렇기에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방편으로 그들을 이끌어주고 다시금 정법으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한마음선원이라는 보살의 보토를 현실에 세워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이 고통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대행이라는 의사를 만나 치료받아 일상으로 돌아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게 해준 것이다. 이러한 대행의 보살행은 그저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불교의 가르침을 이 시대에 맞게 현실화한 방편이었다.

IV. 대행스님의 계바라밀

『한마음요전』에 나타난 대행의 보살행은 같은 시대를 사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불교의 가르침이 그대로 담겨 있다. 본 장에서는 그러한 모습에 담겨진 계행을 보살계를 통해 확인하겠다.

39) 『한마음요전』(2019), 274.

본 연구에서 대행의 계행을 보살계로 파악하려는 주된 이유는 『한마음요전』에 나타난 대행의 계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이다. 대행은 계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아가며 마주치는 모든 경계가 계율이 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마음이야말로 계율의 토대라고 설한다.

3. 세상 전체가 계율 아닌 게 어디 있는가. 문제는 겉으로 세워 놓은 계율이 아니라 근본 마음이다. 가령 남을 조금이라도 해롭게 하는 행을 한다면 계율을 범한 것이고, 그러한 생각을 한번 일으켰다면 그것 또한 계율을 어긋나는 것이다. ... 250계다 348계다 할 것이 없이 전체가 계율이니 한마음으로 지키고 행해야 한다.

4. 계율은 주어지면 짐이다. 그러나 일체 경계를 다 근본 주처에 놓아 가면 구태여 계율의 자로 재지 않아도 저절로 계율이 지켜진다. 그때의 계율은 자유의 날개이다. 계율에 자기를 맞추려 하지 말고 내 안에 이미 갖춰져 있는 계율이 우러나오도록 하라.⁴⁰⁾

대행의 이러한 계율에 대한 설명은 칠불통계와 보살계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그리고 계율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인연에 의해 성립된 것이기에 그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의 마음에 맞춰 불교적 행동을 하는 것이 참된 계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원효의 설명과 같이⁴¹⁾ 계의 형식에 집착하여 범계

40) 『한마음요전』(2019), 676.

41) 각주 14) 참조.

를 두려워해 중생제도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계를 범한 것이 된다. 그렇지만 계를 없다고만 여겨 함부로 한다면 이는 계 자체가 없는 것이기에 계를 잃게 된다. 이에 관해 대행 역시도 “계율을 들고 있는 사람보다는 계율을 다 놓은 사람이 진실로 계율을 지키게 된다. 그렇다고 계율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고⁴²⁾ 하여 계에 집착해서는 안 되지만 계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계바라밀은 한결같이 중생을 위한 것이기에 어떠한 범계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청정비니경』에서도 “조금의 범계가 있더라도 시라바라밀을 이룰 수 있는가. 문수보살이 대답하길, 있다. 보살은 중생을 교화하는 것에 자신의 계를 보지 않는다”고⁴³⁾ 하여 보살에게 있어 중생교화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기에 계율조차도 그것을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계율은 자신이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중생제도가 되기도 하고 범계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대행은 “나 하나 죽는다면 계율은 절로 다 떨어진다”라고⁴⁴⁾ 하여 계율은 그것을 수지하는 자신에 의해 정해지는 것임을 설하고 있다. 대행에게 있어 계율은 자유의 날개이다. 즉 행동을 통제하고 획일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해진 상황에서 적극적인 실천을 이끌어내어 선업을 증장하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계율인 것이다. 이는 보살계의 작지계적 성격과 동일한 것으로 율장의 ‘하지 말라’로 이루어진 지지계止持戒와는 상반된 오히려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행도

42) 『한마음요전』(2019), 677-678.

43) 『법장소』(T40,622b), “又清淨毘尼經云, 問曰, 頗有犯戒成尸波羅密不. 文殊師利答言. 有. 謂菩薩教化衆生不自觀戒.”

44) 『한마음요전』(2019), 679.

다음과 같이 계율에 대해 작지계(作持戒)적으로 설명을 한다.

부처님의 계율은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가 본뜻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많이 하다 보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용도와 분수에 따라서 한다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오계만 해도 ‘하지 말라’로 일관되어 있지만 요즘에 와서는 긍정적으로 “살생하지 말라”를 “평등한 자비심으로 생명을 사랑하라”로, “도둑질하지 말라”를 “보시를 행하여 복덕을 지어라”로, “사음하지 말라”를 “몸과 마음으로 청정행을 닦으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를 “진실만 말하고 신뢰를 지켜라”로, “술 마시지 말라”를 “언제나 밝고 바른 지혜를 가져라”로 해 놓으니까 계율이란 안 함으로써 지키는 게 아니라 부처님 뜻을 받아 행해서 지키는 것이 된다. 근본 마음이 청정하고 바르면 따로 세울 게 없다.⁴⁵⁾

대행의 작지계적 계율해석은 그가 보살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대행의 계율이 특정 경전이나 가르침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수행, 인연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레 익혀지고 불교의 가르침으로 해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저 중생을 아끼고 그들을 제도하겠다는 초발심이 계율로도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계율관은 그저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유연한 해석을 통해 참된 계바라밀의 실천을 이끌어낸다. 특히 불교인으로서 일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식생활 중 육식에 대하여

45) 『한마음요전』(2019), 675-676.

대행은 다음과 같이 일부러 죽이지 않고, 설령 치료나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해야 한다면 그 육식을 하나의 음식이나 재료가 아닌 자신과 하나 되어 함께 수행을 닦는 인연으로 여겨야 한다고 설한다.

모든 계율의 첫 대목에 살생을 하지 말라 하였는데 거기에는 묘한 도리가 숨겨져 있다. 즉, 일부러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말이다.

만약에 부모의 병 치료를 위해 토끼 한 마리를 죽여야 한다면, 그런 경우엔 토끼의 몸도 내 몸이요 토끼의 마음도 내 마음이니 살생이 아니다. 토끼가 나에게로 와 인도환생이 되었으니 오히려 자비가 되는 것이다.⁴⁶⁾

계행은 그것을 통해 올바른 삶을 살고 매순간 마주하는 인연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불교의 기본 가르침인 삼학에서도 계를 우선으로 두어 불교적 삶을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정과 혜를 닦아 깨달음을 얻게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계의 형식에만 집중하면 정작 그 안에 담긴 참된 제정이유와 가르침을 보지 못하게 된다. 대행도 이러한 점을 경계시키며 “더러우면 닦고 흐트러져 있으면 가다듬고 망가지면 고치고 하는 게 계행이니 생활 속에 하나부터 열까지 계율 아닌 것이 없다.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행하며 사는 것이 계행이다.”라고⁴⁷⁾ 하여 생활 전체가 계율이며 그 생활 속에서 매순간을 확인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계행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앞선 설명과 같이 계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기에 항상 매순간

46) 『한마음요전』(2019), 978.

47) 『한마음요전』(2019), 675.

에 마주하는 인연과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 설령 자신이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마주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망설임 없이 그 행동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에 대해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이하 『유가론』)에서는 무위범이라 하여 보살의 범계행에는 오로지 중생을 위한 선심과 연민심만이 있기에 죄가 될 수 없다고 설한다.

『유가론』 「계품」에서 “만일 보살이 강도질을 하는 도적이 재물을 탐하기에 많은 목숨을 죽이려고 하거나, 혹은 다시 대덕인 성문, 연각, 보살을 해하려고 하거나, 혹은 다시 많은 무간업을 지으려는 것을 본다. 이 일을 보고 바로 마음을 일으켜 사유하여, 내가 만일 저 악한 중생의 목숨을 끊는다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만일 그의 목숨을 끊지 않는다면 그는 무간업을 지어서 반드시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비록 그를 죽여서 나락가(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끝내 그 사람이 무간의 고통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한다. 이처럼 보살은 좋은 마음을 내어, 저 중생에 대한 선심이나 무기심으로 사유하고, 이 일을 미리 알고서 당래를 위해 깊이 참괴심을 내고 연민심으로써 그의 목숨을 끊는다. 이 인연으로 인해 보살계에서는 위범하는 것이 없고 많은 공덕이 생긴다고 한 것이다.⁴⁸⁾

48) 『법장소』(T40.612a), “如瑜伽戒品云, 謂如菩薩見劫盜賊, 爲貪財故欲殺多生, 或復欲害大德聲聞獨覺菩薩, 或復欲造多無間業. 見是事已起心思惟, 我若斷彼惡衆生命, 當墮地獄, 如其不斷彼命, 無間業成當受大苦. 我寧殺彼墮於那落迦, 終不令人受無間苦. 如是菩薩意樂, 思惟於彼衆生或以善心或無記心, 知此事已爲當來故深生慚愧, 以憐愍心而斷彼命. 由是因緣於菩薩戒無所違犯, 生多功德故也.”

이 『유가론』의 내용은 보살계의 주석에서 중생을 위한 보살의 범계가 죄가 아님을 설명할 때 인용되는 대표적 내용으로, 보살의 모든 행동은 오직 중생을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범계심도 없이 도리어 자신을 희생한 것이기에 공덕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원효는 이러한 보살의 행동은 적극적인 계바라밀의 실천이며 보살이 중생의 근기에 통달하여 그에 맞는 행동을 방편으로 보인 것이라 하여 그러한 존재를 달기보살(達機菩薩)이라 표현하였다.⁴⁹⁾

이처럼 보살계는 계를 지나치게 따르는 것과 없다고 여겨 함부로 행하는 두 가지 모습을 항상 주의시킨다. 이에 대해 원효도 『요기』에서 잘못된 삼학의 수행 중 계학에 두 종류의 벌레가 있어 첫째는 샷된 계(邪戒)에 머무는 것이고, 둘째는 바른 계(正戒)에 머무는 것으로 둘 다 불법을 먹어 없앤다고 한다.⁵⁰⁾

샷된 계에 머무는 것이란 곧지 못하여 그릇된 계율을 받거나, 스스로 샷되게 생각해 수행으로 이양과 공경을 탐욕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내세워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자신을 찬양하기를 만들며,神通이나 특별한 능력만을 내세운다. 이러한 모습은 불교 안으로는 진실된 가르침을 상하고 하고,

49) 『사기』(X38.284a), “이 중에 4구를 지어 계의 지범을 설명한다. 첫째는 음계를 범하였으나 한결같이 복이며 죄가 아니다(일항복비죄). 말하자면 문수보살 등과 같다. 달기보살이기에 마땅히 음란한 남성의 몸으로 제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음남음녀의 몸으로 나타나 중생을 제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수사리순행경』 중에 두루 설하듯 대보살은 그러한 것도 없기 때문이며, 또한 그러하지 않은 것도 없기 때문이다. 『정명경』 「불도품」 중에 만일 보살의 행이 도가 아니라면 이 보살은 불도에 통달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此中作四句簡持犯. 一者有雖犯姪而一向福非罪. 謂如文殊等. 達機菩薩故應現姪男身得度者. 即現姪男姪女身. 能令之度故. 如文殊師利巡行經中廣說. 大菩薩者無然故. 亦無不然故. 淨名經佛道品中云. 若菩薩行非道. 是菩薩通達佛道故.)”

50) 『요기』(T45.919a), “第二雙者, 依於戒學, 有二類虫. 食滅佛法, 一坐邪戒, 二坐正戒.”

밖으로는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잘못이다.⁵¹⁾ 대행도 앞선 내용과 같이 기복이나 신통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기에 그것을 좇는다면 이교도라 하여 방편을 통한 정법으로의 인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보살행임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바른 계에 머무는 것이란 중생이 살아가는 세상일을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며 홀로 자신의 계를 지키기 위해 위의를 어기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만이 청정한 수행자라는 생각을 일으켜 수계가 낮은 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다소 수행이 더딘 이들을 헐뜯는 행동을 한다. 이는 설령 계를 지킬지언정 보살계에서 가장 금지하는 남을 헐뜯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복이 될 일을 도리어 죄로 만든 것이다.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수승한 것이다. 거기에 높고 낮음이나 뛰어나거나 부족한 차별을 두는 것은 그저 인간이 차별로 세상을 대하기 때문이다. 대행도 불법에 있어 홀로 수승하거나 깨닫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한다. 그리고 상대의 불성이나 내 불성이나 똑같으며⁵²⁾ 개미 생명이나 사람 생명이나 마음 쓰는 차원이 다를 뿐이지 생명은 똑같은 것이다.⁵³⁾ 그렇기에 보살에게 있어 어찌 내 생명은 아깝고 남의 생명은 아깝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곧 보살의 마음인 것이다⁵⁴⁾ 라고 설한다. 이러한 원효의 계학에 관한 설명이 『한마음요전』에도 그대로 담

51) 『요기』(T45.919a), “坐邪戒者, 如有一類, 性非質直, 或承邪戒, 或自邪念, 不衣絲麻, 不食五穀, 變欲貪求利養恭敬, 自揚無比, 誑諸癡類, 希望群愚咸仰己德, 普抑一切無異迹者, 由是內以傷真, 外以亂人, 傷亂之罪, 莫是爲先也.”

52) 『한마음요전』(2019), 760.

53) 『한마음요전』(2019), 719.

54) 『한마음요전』(2019), 722.

겨 있다. 원효와 대행은 중생에 대한 연민을 실천에 옮기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자신까지도 희생한 존재이다. 그리고 그 중생에 어떠한 차별도 없으며 결코 자신이 그들보다 뛰어나기에 그들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자신이 결코 둘이 아니며 한마음으로 이어진 존재임을 여실히 알았기에 가능했던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살행과 계바라밀이 오직 상대에게 주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보살행은 상대와 동체대비로서 실현되는 것이고, 계바라밀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여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작용을 원만하게 실천하는 존재가 보살인 것이다. 그렇기에 법장은 『범망경』의 사십팔경계 중 제20 불능구생계不能救生戒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보살의 중생제도는 자신에게 도와줄 힘이 있고, 그것을 받는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행해야 한다고 하여, 보살의 불필요한 희생과 무분별한 제도행을 제지시킨다.⁵⁵⁾

왕의 힘은 자재하기에 구하려고 해도 할 수 없기에 무죄이다. ... 만일 자신이 중병에 걸렸거나 또는 세력이 없거나 하여 헛되게 자신의 목숨을 잃고 끝내 어떤 이익도 없다면 준하여 마땅히 무범인 것이다. 위의 내용에 반하는 것은 전부 범함이다.⁵⁶⁾

55) 법장(2022), 132.

56) 『법장소』(T40,643b), “王力自在, 救不得故, 無罪也. ... 若自重病, 若無勢力, 徒自殞命, 終無有益, 准應無犯. 反上皆犯.”

법장에게 있어 상대에게 이익을 줄 수 없는 보살행은 바른 이타행이 아니고, 자신에게 역량이 부족한 경우의 희생은 결국 헛된 희생에 지나지 않기에, 보살은 해야 할 바를 사유하여 중생에게 바른 이익이 전해질 수 있게 행해야 한다. 이러한 보살행과 계바라밀의 설명은 『한마음요전』에도 나타나 있다. 대행은 “안 주는 것도 보시요 주는 것도 보시이니 다만 남을 이익 되게 하라”고 하여 일체중생을 차별 없이 제접하기는 하지만 그 인연과 근기를 사려 깊게 판단하여 이익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어야 한다. 보시는 함이 없이 해야 하고, 내가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내가 된다면 그것이 무주상 보시라고⁵⁷⁾ 설한 대행이 이처럼 분별을 하여 보시를 해야 한다고 한 것은 법장이 설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저 주기만 하는 것이 보시가 아니다. 보시는 상대가 지금 필요로 하는 인연을 선심과 연민심으로 사유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이다. 물질적인 것이 보시라고 여겨지는 요즘이지만 최상의 보시는 무외시無畏施로써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참된 보시이다. 그렇기에 물질적인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나쁜 방향으로 가게 한다고 여겨지면 과감히 다른 보시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상태나 환경이 최선의 보살행을 할 수 없다면 오히려 다른 시기를 기다렸다가 행하는 것이 상대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고 자신도 미련이 남지 않게 하는 것이다.

대행의 보살행을 두고 계행에 어긋난 것이라며 파계승이라고 비난한 이들도 있다. 그러나 대행은 “자신이 한 것만큼이지 더하고 덜함도 없다. 알아주면 어떻고 몰라주면 어떠한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것도 없고 다만 내 지극한

57) 『한마음요전』(2019), 722-723.

마음으로 괴로운 사람을 그 고통에서 풀어 주기도 했고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에너지를 주었을 뿐이었다. … 오로지 반야 줄을 쥐고 갈 수 있게 가르쳐 주었을 뿐이니 날더러 욕을 했다 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던가.”라고⁵⁸⁾ 하여 비난의 화살에 누구도 맞지 않게 다시금 보살행을 하였다. 누군가를 향해 비난과 욕설을 한다면 그것으로 악업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당한 사람은 다시 분노를 일으켜 악업이 증폭된다. 그러나 주려는 사람의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게 되는 것과 같이 비난에 대해서도 대행은 보살로서의 자비를 베푼다. 대행의 이러한 모습은 죄와 죄가 아닌 것을 얻을 수 없고, 중생을 교화하는 것에 자신의 계를 보지 않는 것이 계바라밀의 성취라 설한 원효의 설명을 현실에서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대행의 수행과 전법은 보살계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 모든 보살행은 언제나 현실 속에서 실천되고 불법은 언제나 현실과 맞닿아 있다. 지금 살아가는 모습에서 고통을 떨하고 지금의 삶에서 윤회를 끊고 열반을 증득해야 한다. 그렇기에 대행도 “생명이 있기에 마음 있는 것을 알고, 마음이 있기에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평상심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불법이라 한다.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고⁵⁹⁾ 하여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한마음의 이어짐이고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고 설한다. 현실을 떠나 어딘가에 특별하게 불법과 깨달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마음을 알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달은 삶이다. 그러나 중생들은 언제나 무언가 막연하게 존재할 듯

58) 『한마음요전』(2019), 229.

59) 『한마음요전』(2019), 710.

한 특별함을 추구한다. 그러나 우리가 인연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가장 특별한 것이다. 기적이란 없다. 유한하게 산다는 것이 오히려 기이한 것이라고 설한⁶⁰⁾ 대행의 가르침과 같이 자신이 살아 있어야 불법도 있고 마음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대행은 자신의 삶 전체를 중생과 함께 하였고, 비록 다른 육신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한마음으로 이어져 동체대비의 삶을 살았고 지금도 한마음선원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V. 마치며

이상의 내용과 같이 『한마음요전』에 나타난 대행의 행장과 수행이 불법의 실천이었으며, 보살의 계바라밀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보살은 모든 중생과 더불어 깨달음을 추구하지만 언제나 중생을 우선으로 여긴다. 그렇기에 설령 자신에게 어려움을 가져오는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중생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보살의 행동은 보살계에 의해 범계행이 아닌 오히려 공덕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행의 삶과 전법에는 여러 모습들과 방편이 등장한다. 그 모습만을 보고 기복적이거나 비불교적이라 할 수 있으나, 그것은 도리어 범부의 눈으로 가

60) 『한마음요전』(2019), 421.

병게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간신히 하루를 살아가던 당시의 중생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했던 것은 사는 문제였다. 특히 잘 먹고 병 없이 사는 것이야말로 지금 사람들조차도 원하는 것으로, 대행이 출가한 당시에는 비할 수 없을 만큼 간절했던 것이다. 대행은 그러한 중생의 마음과 하나 되어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을 바쳤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중생이 그것을 원하였기에 그런 수행과 방편을 보인 것이다.

대행에게 있어 중생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자신의 가난한 삶을 통해 그들을 이해하고 자신이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도 마찬가지로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불이법문不二法門에 눈뜬 것이다. 그렇기에 도깨비감투를 서원하며 자신을 수행의 길로 이끌었고, 구도의 삶 속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한암 등 모든 인연들과의 관계가 자신과 이어진 것이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현상도 자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 연기적 존재로 거듭난다. 그래서 자신의 서원을 실현하기 위한 보토로서 한마음선원을 개원하여 모든 중생들이 자신을 치유하는 병원이며 삶을 채우는 요양처이고 불법을 익히는 학교로서 그 안에서 차별 없이 존중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한마음선원의 이름과 같이 그들을 한마음의 동체대비로 제접하여 자신이 바로 마음의 주인이고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임을 일깨워줘 일상에서 불교를 실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행의 보살행은 그 자체로 불법을 실현한 것이고 보살계를 실천한 것이다. 불법은 삶을 위해 존재하고, 보살계는 처해진 상황에서 불교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토대이다. 특히 대행의 치병은 당시의 중생들의 간절한 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렇게 불교에 들어선 이들을 대행은 다시 마음의 치료를 통해 참다운 치병으로 이끌었다. 만약 지금 이 시대에 대행이 전법을

펼친다면 지구환경이나 인터넷에 관련된 방편을 보였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대행의 전법과 방편은 시대와 맞닿아 있었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 행한 것이다.

“아무리 오묘한 법을 깨친다 하더라도 중생과 더불어서가 아니면 도가 될 수 없고, 아무리 드높은 경지를 체달한다고 해도 눈물이 없는 것이라면 나는 따르지 않겠다. 깨친 목석보다는 자비심 있는 중생이 더 아름답다”⁶¹⁾ 대행의 법문 속에 그가 보여준 보살행과 계바라밀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중생을 위해 자신의 삶과 수행자로서의 계행조차 아끼지 않았고, 일생을 통해 보살행을 펼친 대행의 모습은 이 시대의 불교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전법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표본인 것이다.

61) 『한마음요전』(2019), 172.

【 참고문헌 】

• 약호

T 大正新脩大藏經

X 卍續藏經

• 1차자료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T24)

『菩薩瓔珞本業經』(T24)

『菩薩戒義疏』(T40)

『菩薩戒本持犯要記』(T45)

『梵網經菩薩戒本私記』(X38)

『梵網經菩薩戒本疏』(T40)

『한마음요전』(2019), 안양: (재)한마음선원.

• 2차자료

사토 미츠오, 김호성 역(1991), 『초기불교교단과 계율』, 서울: 민족사.

법장(2022), 『『범망경』 주석사 연구』, 서울: 은정불교문화진흥원.

법장(2023), 『『범망경』 주석서에 나타난 계체론 연구』, 『한마음연구』제10집,
안양: 대행선연구원.

石井公成(1984), 『法藏の『梵網經菩薩戒本疏』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32-2.

水野弘元(2015), 『佛敎要語の基礎知識』, 東京: 春秋社.

“『한마음요전』에 나타난 계바라밀의 고찰”에 대한 논평문

금강스님(해인사 율학승가대학원장)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재가신자 오계 수지에 있어서 부분 수계의 문제」, 「가야불교에서 가야산이 지니는 의미에 관한 고찰」 등의 논문이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계율부문 교육아사리이며 해인총림율학승가대학원 대학원장이다.

한마음선원을 개원하신 묘공당 대행선사의 열반 11주기인 2023년 대행선 연구원에서는 큰스님 업적을 기리고 정리하며 올해까지 지속적 연구와 성과가 발표되고 있다. 근현대의 큰스님들에 대한 연구와 업적을 정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으로 대행선연구회의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근현대 큰스님들의 업적을 정리하는 대행선연구회의 노력은 본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한마음요전』에 나타난 계바라밀의 고찰의 연구는 대행선사의 수행과 사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대행선사의 계에 대한 관점을 법요집인 『한마음요전』을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이다. 논자는 대행선사의 법어집인 『한마음요전』을 중심으로 대행의 삶과 수행방편을 통해 보살의 바라밀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연구논문이라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논자가 살펴본 『한마음요전』은 대행선사의 수행과 법문 그리고 계송 등을 집대성해놓은 법어집이다.

본 연구 논문은 우선 대행선사의 보살행을 살펴보기에 앞서 대승보살의 개념을 살펴보고, Ⅲ장과 Ⅳ장에서는 대행선사의 보살행과 계바라밀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 있다. 대행선사의 보살행과 계행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본 연구 논문을 통한 의문점을 논자에게 질문해 보겠다.

본고는 대행선사의 계에 대한 연구에 앞서 대승보살계의 개념을 천태지의의 『보살계의소』, 현수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 원효의 『보살계본지범요기』, 『범망경보살계사기』를 통해 보살계가 불교 수행의 근본이며, 불교인이 되기 위한 토대가 된다는 것을 『보살영락본업경』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논자는 보살계의 특징으로 ‘마음이 있는 그 상태가 그대로 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는 심법계체를 설명한다. 심법계체는 보살계를 일정한 형태로만 보

존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 대한 보살행에 따라 유연성을 가질 수 있고, 비록 계의 항목이 존재하지만 방편으로서 그것을 초월하는 형태와 해석으로서의 특징을 설명한다.

보살계는 마음을 토대로 하기에 일정한 형식에 맞춰 지계持戒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연민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며, 그런 까닭에 대승보살계는 지지止持보다는 실천의 작지作持를 중시한다. 실천의 대상이 자신이 아닌 중생이기에 그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한 변화까지도 수용한다고 보살계의 이념을 논자는 설명한다. 이러한 보살계의 이념과 특징을 통해 논자는 대행선사의 보살행과 계바라밀을 살펴보고 있다.

Ⅲ장에서는 대행선사의 행장 속에서 나타나는 보살행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대행선사의 어린 시절의 서원인 ‘도깨비감투’라는 보살행을 설명한다. 대행선사의 ‘도깨비감투’는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동화 속 내용으로 이는 어린 시절부터 나보다 남을 위하는 마음(중생구제를 위한 발심)이 나타난 서원과 발심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웃에 대한 보리심의 발현과 출가의 인연을 맺어준 것으로 대행선사는 관세음보살의 화현과 같은 어머니의 영향 아래 출가자의 삶과 보살의 삶을 서원한 것으로 이해된다. 어머니의 영향과 출가수행을 통해 대자대비의 중생구제에 대한 발현을 하고 실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행선사는 치병治病에 대해서도 수행의 성과나 신통력으로 이해하지 않고 동체대비를 통한 중생구제로 이해한다. 대행선사는 치병 또한 중생구제를 위한 보살행이며, 치병의 경험을 통해 불교에 입문하였어도 그들을 깨달음과

수행의 과정으로 대행선사는 전환시키고 있다. 논자는 치병을 통한 불교의 인연과 깨달음으로의 전환에 대해 미즈노 고겐의 사제의 치병원리와 대행선사의 치병을 통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설명함으로 대행선사의 보살행과 그 방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논자는 대행선사의 ‘도깨비감투’, 보리심과 출가, 그리고 치병이라는 대행선사의 행위는 보살의 바라밀을 현실에서 실천하려 노력했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불교의 가르침을 시대에 맞게 현실화한 방편으로 대행선사의 보살행을 설명한다.

IV장에서 논자는 대행선사의 계바라밀에 대한 견해를 『한마음요전』을 통해 살펴본다. 바라밀은 ‘피안에 도달한 것’을 의미한다. 즉 완성을 의미하는데, 본 장은 결국 대행선사의 지계 완성을 의미하는 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행선사의 바라밀에 대해 논자는 중생교화의 대표적인 성자인 원효의 보살행과 비교한다. 논자는 ‘원효의 설명과 같이 계의 형식에 집착하여 범계를 두려워해 중생제도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계를 범한 것이 된다’는 견해에 대해 대행선사도 원효와 같이 계에 집착해서는 안 되지만, 계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계바라밀은 한결같이 중생을 위한 것이기에 어떠한 범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한마음요전』의 가르침을 통해 원효의 견해와 대행선사의 가르침이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즉 대행선사는 실천을 강조하는 작지계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고 논자는 대행선사의 계바라밀의 견해에 대해 설명한다.

논자는 대행선사의 ‘안 주는 것도 보시요 주는 것도 보시이니 다만 남을 이익되게 하라고 하며 일체중생을 차별없이 제접하기는 하지만 그 인연과 근기를 사려깊이 판단하여 이익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어야 한다’며 분별을 통

한 보시를 행하는 것을 법장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다. 대행선사의 보살행에 대한 설법이 법장, 원효와 같은 성인들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통해 대행선사는 지계보다 지범개차持犯開遮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며, 중생구제를 위한 작지계적인 성격이 계의 바른 실천이라는 대행선사의 보살관을 논자는 입증하고 있다.

논자가 살펴본 대행선사의 보살행과 계바라밀에 대한 견해는 대승의 삼취정계三聚淨戒 중에서 요익중생계饒益衆生戒로 회향되는 것으로 필자는 생각된다. 보조지눌의 『계초심학인문』에 의하면 ‘수오계십계등受五戒十戒等 선지지범개차善知持犯開遮’라 하며 지범개차를 대행선사는 강조하며, 원효처럼 중생구제를 위해서 계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며, 작지계적인 성격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계바라밀에 대한 대행선사의 사상을 살펴볼 수 있다. 본고를 통해 대행선사는 지지계의 성격보다는 작지계의 관점에서 중생구제를 중요시하며 삼취정계 가운데 요익중생계의 관념을 중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논문으로 생각된다.

논자의 연구는 대행선사의 대승적 관념에 중심을 두고 보살행과 계바라밀을 주된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살펴보고 있다. 논자는 대행선사의 보살관은 보살행의 실천과 중생구제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원효나 법장과 같은 보살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본고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대행선사는 중생구제와 자리아타를 위한 일체의 행위는 지범개차와 작지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실천한다. 대행선사의 관점에 있어서 논평자는 보살행의 관점이 아닌 수계와 지지계의 입장에서 논자에게 질문하고자 한다. 논

자는 대행선사는 중생구제라는 보살행을 중시한 까닭에 대행선사의 계행을 보살계로 파악하였다고 논평자는 이해한다. 1950년 출가하여 오대산 한암선사에게서 정식 수계를 받은 이후 대행선사는 수행정진에 열중하였는데, 종단이 설립된 이후 한암선사의 제자인 탄허강백의 권유로 승적을 회복하였다고 한다. 1960년 사미니계, 1961년 비구니계를 받은 것으로 수계를 종단으로부터 승인 받는다. 이러한 수계의 승인의 과정에 있어서 대행선사는 불교의 실천과 수행을 중요시한 까닭에 수계에 대해서는 그 인식의 중요성이 낮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대행선사는 논자의 견해대로 지범개차와 작지계의 개념으로 중생구제를 중요시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지지계의 입장에서 신도들에게 오계나 보살계의 실천에 대한 대행선사의 견해가 궁금하다. 대행선사는 율을 실천이 어려운 까닭에 단지 수계를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논자의 견해가 궁금하다.

지지계에 있어서 대행선사의 관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한마음요전』에 나타난 계바라밀의 고찰에 대한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요전』에 나타난 계바라밀의 고찰”을 읽고

이지랑(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일본 도쿄東京대학에서 2001년에 「초기불교교단의 연구 : 승단의 분열과 부파의 성립」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 등에서 초기불교 및 율장을 강의하였다. 『나를 일깨우는 계율이야기』, 『붓다와 39인의 제자』,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공저), 『율장의 이념과 한국불교의 정향』 등의 저서를 비롯하여, 초기불교교단사 및 계율에 관한 50여 편의 논문이 있다.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한문불전번역학과 HK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

본 논문에서는 묘공당 대행(妙空堂大行, 1927-2012, 이하 ‘대행’으로 표기)의 행장·범어집인 『한마음요전』을 중심으로 대행의 삶과 전법 방식을 계율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법장스님(이하 ‘논자로 표기’)이 기술하고 있듯이, 대행은 근현대 한국불교의 중흥과 전법에 앞장선 인물로, 무엇보다 불교가 대중과 함께 살아 숨 쉬며 일상생활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마음요전』은 이러한 대행의 삶과 가르침을 여실하게 담고 있는 대표적인 저서로, 이 책은 고달픈 삶을 구도求道의 길로 승화해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특히 그 삶에서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것은 중생과 아픔을 함께하고자 하는 동체대비의 이타행이다. 논자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대행의 삶과 수행, 전법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그 결과, 대행의 이타행이 보살심과 보살행의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그 보살행에 보살계가 갖는 일반적인 특징이 보인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대행의 계행을 계바라밀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한편, 이러한 보살행들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적 차원에서 실행된 것이라는 점을 잘 설명해내고 있다. 매우 적절한 시각이라고 생각되며, 향후 대행의 계행을 이해하고 그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값진 연구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의 구성과 내용을 정리한 후,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며 논평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2.

본 논문의 본론은 대승보살계의 이념(제2장), 대행스님의 행장 속 보살행(제3장), 대행스님의 계바라밀(제4장)의 총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대승보살계의 이념’에서는 지의나 법장, 원효 등 『범망경』을 주석한 승려들의 견해를 기반으로 대승보살계가 갖는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 보살계가 선을 실천하고 악을 그침으로써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며, 불도 수행의 근간이자 불교인이 되는 토대라는 점을 기술한다. 그리고 원효의 저술에 근거하여 인연생(因緣生)의 입장에서 보살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즉, 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행동에 제약을 받거나 중생제도를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지범개차의 입장을 서술한다. 또한 계체(戒體)의 측면에서도 대승보살계의 특징을 언급한다. 보살계는 심법계체(心法戒體)이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생 원인인 범계심에 초점을 두고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것이다. 원효가 주장하는 인연생의 입장 및 보살계가 심법계체라는, 대승보살계가 갖는 특징으로 논자가 거론한 이들 내용은 이후 본 논문에서 대행의 보살행을 분석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제3장에서는 『한마음요전』에 보이는 대행의 행장을 분석하며 보살행을 추려내고 있다.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도깨비감투를 꿈꾸었던 것을 대행의 발보리심 서원으로 자리매김하고, 부모를 비롯한 스승 등 다양한 인연들과의 관계 속에서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어떻게 자신을, 또한 중생들을 이끌어갔는가 하는 점도 상술한다. 또한 한마음선원을 대행이 보살행을 실천한 보토로 평가하고, 그 치병 활동을 중생을 위한 동체대비의 방편이라는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앞서 두 장에서 각각 검토한 대승보살계의 특징과 대행의 보살행을 관련 지워, 대행의 보살행이 보살계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서술하고 있다. 논자는 대행이 계율 수지에 있어 ‘마음’을 중시하는 점을 거론하며, 계율이 고정적인 것이 아닌 인연에 의해 성립된 것이기에 그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의 마음에 맞추어 불교적 행동을 하는 것이 참된 계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점이 보살계의 가르침과 상통한다고 본다. 또한 대행이 계율을 지지계止持戒가 아닌 작지계作持戒의 관점에서 실천을 독려한다는 점 역시 보살계와 상통하는 특징으로 언급한다. 예를 들어 육식의 경우, 일부러 죽이는 것이 아닌, 치료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육식은 하나의 음식이나 재료가 아닌 자신과 하나 되어 함께 수행을 닦는 인연으로 여겨야 한다고 설하는 점을 언급하며, 중생을 위한 보살의 범계는 죄가 되지 않으며, 도리어 적극적인 계바라밀의 실천이라는 원효의 가르침에 상통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논자는 대행의 계행은 보살계를 근간으로 항상 중생의 이익을 위한 방편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특징을 갖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3.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평자는 이견異見이나 반론은 없다. 다만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및 율장과 비교했을 때 보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삼귀의와 수계의 문제이다. 제2장에서 “믿음을 갖고 불교에 입문하기도 하지만, 모든 불교의례의 첫 번째에 삼귀의를 두고 있듯이 우선 불교에 귀의하고 수행을 닦는 것이다. 그리고 불교에 귀의한다는 것이 수계를 하여 불교적 삶을 실천하고 그 안에서 수행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보면, 논자는 삼귀의를 삼보에 대한 ‘믿음’이 아닌 수계 내지 수행생활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삼귀의는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즉,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을 시작으로 이후 수계를 비롯한 수행생활이 가능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아야 할지 고견을 듣고 싶다. 즉, 부파불교의 경우에는 부파에 따라 불자가 되는 기본 요건으로 삼귀의만을 제시하는 것도 있고, 삼귀의와 수계를 더불어 제시하는 것도 있다. 대승불교 혹은 대승보살계와 관련해서 이 점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혹시 『한마음요전』에 이와 관련하여 대행의 가르침이 있는지 궁금하다.

둘째, 제2장에서 보살계가 심법계체라는 점을 서술하며, 보살계에 있어 마음이 갖는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마음이 다함이 없기에 계 역시 다함이 없다고 하며, 마음과 계의 불가분성을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살계는 받았지만, 처음 보살계를 받을 때 가졌던 강렬한 보리심이 점차 떨어져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전에 관련 구절이 있다면 소개 바란다. 이 경우에도 ‘일득영불실—得永不失’은 가능하다고 보는가?

셋째, 보살계는 본 고에서 주로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인연과 상황에 따른 유연함을 중시하기도 하지만, 실제 조문의 내용은 율장의 그것에 비해 엄

격하다. 예를 들어 생류(生類)의 목숨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율장에서는 ‘살인’만을 바라이(波羅夷)로 취급하지만, 『범망경』에서는 “생명 있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라고 하여 개미 한 마리 죽이는 것도 바라이로 규정한다. 본고에서는 의적이나 법장, 원효 등 『범망경』 주석가나 『유가사지론』에 나오는 구절에 근거하여 중생의 이익이 된다면 오히려 공덕이 된다는 입장에서 대승보살계의 특징, 나아가 대행의 계행이 갖는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계본(戒本)’의 내용을 본다면, 보살계는 율장보다 오히려 더 강도 높게 악행의 차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원효의 달기보살의 개념 등 동아시아불교권에서는 『범망경』의 주석가들이 계본 자체의 구절과 달리, 본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중생의 이익’이라는 상황에 따른 적용을 인정한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넷째, 보살계가 갖는 유연한 입장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다. 제2장에서 마음과 계의 관련을 기술하며 “이러한 심법계체의 특징은 보살계를 일정한 형태로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 대한 보살행에 따라 유연성을 가질 수 있고, 비록 계의 항목이 존재하지만 방편으로서 그것을 초월하는 형태와 해석으로도 발전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보살계가 마음과 불가분의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각자가 직면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나아가 논자는 “중생을 위해 방편을 행하고 인연에 따라 유연하게 가르침을 설해주는 모습에서는 지범개차를 확인할 수 있다.”(서론 중에서)라고 대행의 계행이 갖는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이 점은 본고에서 대행의 계행이 갖는 대표적인 특징으로 기술되고 있으며, 보살계 관련 문헌에서 보살계가 갖는 특징으로 언급되고 있는 점 역시 사실이

다. 그런데 이는 때로 보살계가 비판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요컨대 ‘중생을 위해’서라면 설사 계율에 어긋나는 행위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입장은, 실천하는 자의 근기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합리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대행처럼 근기가 뛰어나 진심으로 중생의 이익을 위해 지범개차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초심자는 자칫하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대행이 대중에게 남긴 가르침이 있는지 궁금하다.

다섯째, 대행의 대표적인 보살행 중 하나로 치병治病을 들고 있다. 논자는 신통이 아닌, 동체대비의 방편으로 치병 행위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치병이 논자의 주장처럼 일체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보살행의 일환이자, 정법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논자 역시 동의한다. 다만 병자를 ‘간호’한 차원이 아닌, 실제로 ‘치병’을 했다는 것은 대행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이 점에 대해 고견을 청한다.

이외 사소한 수정 사항으로...

- 주11)의 원문 제시에서 본문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비구의 성품을 구족하게 되는 것이다”에 해당하는 원문이 빠져 있다.
- 제2장 『범망경보살계사기梵網經菩薩戒私記』 → 『범망경보살계본사기梵網經菩薩戒本私記』

제2주제

주인공 원리와 관법의 상관 구조 고찰

• 좌장 _ **안성두**(한국불교연구원장)

독일 함부르크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연구원과 교수를 거쳐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활동하다가 퇴직하였다. 현재 한국불교연구원 원장. 연구 분야는 유식사상과 여래장 사상이며 이와 관련된 많은 논문이 있다. 관심 분야는 인도불전의 번역으로서 『보성론』, 『보살지』, 『성문지』 등을 산스크리트에서 번역하여 출판하였고, 『유가사지론』을 근간 출판할 예정이다.

발 표 이상호(서강대 박사)

논평 1 윤종갑(동아대 초빙교수)

논평 2 최원섭(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주인공 원리과 관법의 상관 구조 고찰

이상호(서강대 박사)

위덕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서강대학교에서 『의정의 이원화와 통합을 활용한 생수선 정립 방안 연구 : 대중적인 간화선 수행법을 중심으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문으로 「대행선관법의 체계에 대한 고찰(1) : 주인공관법과 증명관을 중심으로」(2019), 「대행선관법의 체계에 대한 고찰(2) : 사심관법을 중심으로」(2020), 「임제선과 대행선의 비교를 통한 회통성 : 대행선, 회귀인가? 회통인가?」(2022) 등이 있다.

I. 서론

II. 주인공 원리의 성립

1. 주인공 원리의 보편성
2. 주인공 원리의 작용 구조

III. 주인공 원리와 관법의 상관 구조

1. 주인공 원리와 주인공 관법
2. 주인공 원리와 증명관

IV. 결론

I. 서론

대행선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서는 다른 수행법과 차별화된 대행선의 독창적인 원리와 수행법의 체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 둘의 상관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그간 대행선 연구는 수증론을 중심으로, 불성론에서는 한마음과 주인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고, 수행론에서는 주인공 관법과 그 외 증명관·불이관·일심관·무심관·사심관·대행선관법·묘공관법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관법들이 연구대상이 되었다.¹⁾

대행선의 원리적 측면에서 연구 경향은 실질적으로는 한마음 주인공 등 불성론 중심으로 다루어졌고, 전체 사상적인 맥락 속에서 체계적인 원리 분석 연구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법 연구도 대행선 사상의 원리적 측면과 수행론적 입장을 비교 분석한 입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을 원리로 삼을 것인가?’라는 물음이 아직 던져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욱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떤 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원리 정립과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²⁾

그렇다고 대행선 사상에 원리적 요소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유

1) 이상호(2019), 277-338.; 이상호(2020), 261-302, 참조

2) ‘한마음원리’라는 용어를 쓰기는 하지만, 보편적인 사용을 위한 검증과 인증 과정이 필요하다.

의 독창적인 원리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원리로 정립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한마음요전』 ‘원리’편에서 ‘마음내기 이전’과 ‘마음내기’ 그리고 ‘육신’이 서로 합해지는 ‘삼합’이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대표적인 원리로 삼을 만하다. 이것을 대행은 ‘주인공 원리’라고 명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거나 연구 주제가 된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오히려 의아스러울 정도다.

아마도 ‘주인공 원리’라는 용어 자체는 『허공을 걷는 길』 전권에서 겨우 한 손가락 꼽을 정도로 발견되기 때문에 그것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어려웠거나 또는 ‘주인공’이라는 말 자체에 주인공 원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굳이 ‘원리’라는 말을 덧붙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³⁾

다만, 그 원리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삼합에 대한 법문은 매우 빈번하게 그리고 다양한 관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삼합의 원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는 있으나, 대부분 대행선 사상 체계와 연관 관계 속에서 심층 분석한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를 통해서 관법과 그 근거로서 주인공 원리와 상호 관계의 구조적 분석은 관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만약 관법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진 원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규정된다면, 대행선 사상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필연적인 관계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는 관법의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수행법 정립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한마음요전』 상 ‘원리’편에서는 ‘한마음 주인공’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다.

특히, 현재 대행선 관법이 여러 종류의 명칭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서로 비슷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혼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체계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은 변하지 않는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리와 관법의 상호 관계 분석은 그 기반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행선 사상의 보편적인 진리적 측면에서 주인공의 작용 원리와 대행선의 관법 중 주인공 관법 및 증명관 등을 대상으로 상호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행선의 정체성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연구 자료는 『한마음요전』과 『허공을 걷는 길』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제2장에서 주인공 원리 성립의 보편성과 작용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주인공 원리와 주인공 관법 및 증명관 등의 요소들과 비교 분석할 것이다.

II. 주인공 원리의 성립

1. 주인공 원리의 보편성

대행선 사상을 집약해 놓은 『한마음요전』 제2부 「원리편」에는 “삼합-생명

의 실상”이 수록되어 있다.⁴⁾ 이 요전의 편제상으로 볼 때 삼합은 한마음 사상의 원리적 측면에 해당한다. 삼합의 개념은 몇 가지 다양한 용어들로 그 뜻을 설명하지만, 대체로 생명의 근원, 마음, 육신 등이 서로 합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삼합과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김호귀가 여러 비유들을 통칭하여 ‘삼합의 원리’라는 개념으로 소개하였다.⁵⁾ 그는 대행선과 목조선의 수증관 비교를 통해 그 구조적 측면에서는 관법수행과 오공법의 개념을 설정하였고, 원리적 측면에서는 즉생활적(即生活的), 수증불이(修證不二), 한마음의 현성적(現成的)인 특성을 제시하면서, 삼합의 원리를 삼각원형(三角圓形)의 원리로서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분별이 따로 없는 수증불이(修證不二)의 관점으로 파악하였다.⁶⁾

그러나 본 연구는 그의 관점과는 달리, 삼합을 중심으로 하는 주인공 원리의 작용 구조 그 자체에 대한 분석과 함께 관법 수행의 근거로서 원리적

4) 『한마음요전』(2016), 384.

5) 김호귀(2019), 99-100. “대행선사는 이와 같은 원리에 대하여 “때로는 영원한 생명과 마음(생멸하는마음)과 육신이 삼각으로 둥글게 돌아서 인간을 이룬다.”고 말한다. 그것은 한마음이 근원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현상적인 것으로 출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삼각원형(三角圓形)의 원리는 한마음이 바로 육신이고 마음이며 생명으로 나타나고, 정자와 난자와 불씨(불성)로 나타나기도 하며, 아버지의 뼈와 어머니의 살과 마음 및 생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몸과 마음내는 것과 마음내기 이전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영원한 생명과 생각을 낼 수 있는 분별(마음)과 움직이는 육신(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무전자와 유전자와 물질로서의 육신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비유적으로는 소와 마부와 달구지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 삼합의 원리는 어디까지가 수행이고 어디까지가 깨달음인지 수증에 대한 분별이 따로 없다.”

6) 김호귀(2019), 99-100. “이들 삼합의 원리는 어디까지가 수행이고 어디까지가 깨달음인지 수증에 대한 분별이 따로 없다. 그것은 수행이 깨달음의 행위이고 깨달음은 수행의 연속이기 때문에 수행과 깨달음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일체로서 존재하면서 작용하는 까닭에 몸이 50%라면 마음이 50%이다. 일찍이 방거사의 “신통과 묘용이란 물 길고 나무 하는 것이다.”는 말에 닿아 있다.”

특징 및 원리와 관법 상호 관계의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 하나는 한마음과학원에서 2004년도에 주최한 국제학술회 발표 자료인 「한마음과학: 대행스님의 과학관에 삼합의 개념을 응용한 ‘한마음원리’가 소개되었다. 그 자료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와 같은 [생명의 근원↔마음냄,↔마음나뭇(현상화)]의 삼각원형적 순환원리를 ‘한마음원리’라고 정의”⁷⁾하고, 관법을 “[믿고, 맡겨 놓고, 지켜보기]로 요약”⁸⁾한 후, 한마음원리와 관법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한마음원리는 삼합에서 ‘육신’의 개념을 ‘마음나뭇(현상화)’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육신을 마음나뭇이나 현상화의 일종으로 볼 수는 있지만, 현상화를 육신의 개념만으로는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엄격히 볼 때 두 용어가 동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논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본 논문에서는 삼합으로 중심으로 하는 주인공 원리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삼합의 원리’ 및 ‘한마음원리’와 관련하여 대행은 삼합이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인공의 원리’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만약, 이 세 가지 용어가 서로 같은 뜻이라면 대행의 친설로 언급한 ‘주인공 원리’라는 용어로 통일시키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송장이죠? 생각이 없다면 목석이죠? 육신이 없다면 무효죠? 삼합이 같이 돌아가면서 작용을 하니까, 이것이 바로 주인공

7) 김용환외 7(2004), 5.

8) 김용환외 7(2004), 10.

의 원리란 말입니다.⁹⁾

주인공 원리는 개개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생명·생각·육신 등 기본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다. 대행은 “그런데 또 몸뚱이 하나로 본다면 영원한 자기의 생명, 그 근본이 있기에 마음을 낼 수가 있어서 법이고, 몸을 움죽거릴 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활용입니다.”¹⁰⁾고 하여 근본·법·활용 등이 하나의 육신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사람 하나 태어나자면 삼합이 이뤄져야 한다.”¹¹⁾고 하여 삼합이 각 개개인의 일이라고 밝혔다. “영원한 생명과 마음과 육신이 삼각으로 동글게 돌아서 인간을 이룬다.”¹²⁾고 할 때는 인간의 보편적인 구성요소가 영원한 생명·마음·육신 등 세 가지라고 하였다.

위 인용문들은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생명, 마음, 육신 등 삼합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는 주인공 원리는 보편적인 원리로서 성격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2. 주인공 원리의 작용 구조

1) 근본과 현상의 불이

주인공 원리는 전체적으로 주인공의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단적으

9)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법회3』(2011), 1368.

10) 『허공을 걷는 길, 법형제법회1』(2001), 70-71.

11) 『한마음요전』(2016), 384.

12) 『한마음요전』(2016), 384.

로 보여준다. “주인공이란 생각나기 이전의 마음 중심, 바로 나의 기둥이라 할 수 있다.”¹³⁾고 하여, 영원한 생명의 근원 그 자체로서 움직이지 않는 부동不動¹⁴⁾의 정靜적인 측면을 말한다.

또 한편으로는 “삼합이 공존하니까 주인공이라 했다. … 달리 보면 주인공이란, 삼합이 공체로서 공존·공용·공식하는 진면목이다.”¹⁵⁾고 하고, “삼합이 같이 동일하게 지금 움직거리고 가는 것을 바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¹⁶⁾라고 하므로, 삼합 그 자체가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한생각을 일으키고 육신을 움직이게 하는 동動적인 현상을 포함하여 모두 주인공이라고 한다.¹⁷⁾

결국 주인공은 정靜적인 입장의 근본[마음내기 이전]과 동動적인 측면의 현상[육신의 작용]을 모두 수용하므로 근본과 현상 또는 마음내기 이전과 육신의 작용이 불이不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행이 “내 몸과 마음내는 것과 마음내기 이전이 삼합이 되어 공전

13) 『한마음요전』 (2016), 351.

14) 『허공을 걷는 길, 국내지원법회3』 (2005), 1651. “그거와 같이 여러분한테는 그 불성이라는 자체가 움직거리지 않고 부동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배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불기둥이라고 해도 좋고 주장자라고 해도 좋고 자부처라고 해도 좋고 불성이라고 해도 좋고 주인공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15) 『한마음요전』 (2016), 385.

16) 『허공을 걷는 길, 법형제법회1』 (2001), 401.

17)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2』 (1999), 15. “마음이라는 것은 온 도량 한울에서, 즉 하나로서의 이 마음을 내게하는 하는 겁니다. 움직거리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내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주인공, 그 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내게 하는 자는 바로 불성의 능력이라고 하고, 마음으로써의 육체를 움직거리려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기에 모두 한마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다.”¹⁸⁾고 하므로, 주인공 원리는 마음내기 이전인 주인공에서 시작하여 주인공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⁹⁾

이상에서 볼 때, 주인공의 원리에서 마음내기 이전과 마음내기 그리고 육신의 움직임이 모두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는 곧 주인공의 작용 방식을 의미한다. 즉 주인공의 작용은 생명과 마음과 육신의 작용 등 어떤 요소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인공 원리의 내부적 연결고리는 통신으로 비유한다. 즉, 마음내기 이전에서 마음내기와 사대 육신에 이르기까지 ‘통신’에 의하여 전달된다.

한 분의 이름만 불러서 만약에 그 마음만 내 마음과 둘이 아니게끔 한다면 거기에 통신이 돼서 대뇌로 해서 중뇌에서 책정을 내리면 사대로 통신이 돼요. 그래서 안에 있는 그 의식들이 다 알고 한마음으로 따라 줘요. 이것은 심성의학일 수도 있고 심성과학일 수도 있습니다. 내 한마음의 한생각의 통신이면 사대로 통신이 돼서 이 안에서 다 알고 작용을 해 줄 텐데 통신이 안 되니까 대처할 수가 없는 거죠.²⁰⁾

‘한 분의 이름만 부르는’ 것에는 현재의식이 개입된다. 이 현재의식에 따라 자기 안의 의식들이 한마음으로 따라주기 때문에 현실적인 삶의 과정에서는

18) 『한마음요전』(2016), 385.

19) 『한마음요전』(2016), 356. “인간의 뿌리는 체가 없어 보이지 않으나 마음내고 말하고 보고 듣고 걷는 일체의 행동을 하게 하는 것도 주인공이다.”

20) 『허공을 걷는 길, 국내지원법회3』(2005), 1483-1484.

현재의식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²¹⁾

따라서 삼합이 정확하게 통신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로 해야 하고, 육신의 보고 듣고 움직이는 작용도 올바르게 해야 한다.²²⁾ 그럴 경우 근본인 마음내기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 입력이 되고, 그 입력된 대로 또 다시 마음내기를 할 수 있게 된다.²³⁾ 통신에 의해 이어지는 주인공 원리는 비단 한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용, 공체, 공식하는 전체로 통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리가 될 수 있다.²⁴⁾

2) 순위연동형 구조

주인공 원리는 생명, 마음, 육신 등 삼합이 되어 서로 공존하면서 통신에 의해 입력하는 대로 연동하여 작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구조를 잘 보

-
- 21) 『허공을 걷는 길, 국내지원법회3』(2005), 1303. “여러분이 걸레는 빨아서 그냥 쪽 짜서는 아무 데나 팽개치면서도 만약에 금이라면 장속에 갖다 놓느라고 열나죠. 금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장속에 넣긴 하되 걸레 짜서 팽개치듯이 착을 두지 말라 이 소립니다. 모든 게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는 관리인일 뿐이고 바로 생명들의 집합소일 뿐입니다. 가만히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한 생각 한 생각 하는 게 금입니다. 금! 보배고요. 한 생각에 말입니다.”
- 22)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법회1』(2011), 576-577. “그럼 살림살이하거나 또는 정치를 하거나 또는 과학자거나 심리학자거나 누구를 막론해 놓고 보고 듣고 또는 움죽거리고 냄새 맡고 그 사람의 모든 작용을 알게 되고 움죽거리는 이 소임을 육신이 하는 겁니다. 모든 기능과 전부 다 말입니다. 이 소임을 똑바로 함으로써, 똑바로 생각함으로써 똑바로 이 컴퓨터에 입력이 된다 이 소립니다.”
- 23)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법회1』(2011), 579. “그리고 또 어떠한 생명체들 무정물 식물 모두가 공생, 공용, 공체, 공식하기 때문에 내가 이 컴퓨터에 모든 것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한 대로 통신력이 확 퍼져. 그래서 보이지 않는데 그 액체의 즙이 나한테 그대로 자동적으로 돌게 돼 있어요.”
- 24)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법회1』(2011), 577. “천지 우주간 법계에 다 통신이 되고, 누구든지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기 때문”

여주는 것은 소, 마부, 달구지의 비유다.

소가 있고 마부가 있고 달구지가 있다. 달구지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를 끌고 다니는 소가 있다. 또 소만 있는 게 아니라 일 가고 저리 가고, 섰다가 갔다가 하는 것을 조정하는 마부, 나침반을 쥐 운전수가 있다. 고로 달구지는 움직이더라도 소에 의해 끌려다니니 움직인 사이가 없다.

소의 입장에서 보면 능력을 갖고 있으되 마부가 하자는 대로 능력을 내줄 뿐이다. 소는 잠재된 능력이고 마부는 현재 의식인 셈이다. 마부는 마음을 낼 뿐이다. 그런데 이 마부가 달구지와 마부를 자기라고 한다. 소가 있어 달구지를 끌고 다니는 줄은 모르고 있다. 50%밖에 모르는 것이다.

현실 세계는 소와 마부와 달구지가 삼합이 되어 돌아간다. 그걸 아는 게 현명한 마부이다.²⁵⁾

이 달구지 비유에서 소를 마음내기 이전, 마부를 마음내기, 달구지를 육신으로 비유하면, 마음내기하는 마부의 현재 의식에 따라 마음내기 이전이자 잠재적 능력으로서 소가 응해주고, 소가 응해주면 육신인 달구지가 움직이게 된다. 이 셋은 결국 삼합이 되어 돌아가지만 마음내기 이전으로부터 마음내기에 따라 육신의 움직임까지 순서대로 연동하여 작용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25) 『한마음요전』, (2016), 386.

3) 삼위일체형 구조

주인공의 원리는 순서에 따르는 연동구조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의 구조도 가능하다. 대행은 “영원한 생명과 생각을 낼 수 있는 분별, 그리고 움직이는 육신, 이것이 바로 법신이요 화신이니 삼위일체로 회전하면서 자기가 바로 선장이자 길잡이이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²⁶⁾ 라고 하여 불교의 삼신三身사상과 연관시키는데, 그 구조적 특징은 다음 설법에서 잘 나타난다.

이 법당에는 왜 부처님 한 분만 모셔 놓느냐 하는 분들도 있겠죠. 대개 절에 가면 삼불을 모셔 놓거든요. 문수, 보현, 부처님, 이렇게 삼불을 모셔 놓습니다. ...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는 부처고, 한생각을 냈을 때는 문수고, 한 몸이 움죽거렸을 때는 보현이구나 하는 걸 말입니다. ...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낼 때는, 가만히 있든 통틀어 일심으로써 한 부처가 됐든 벌써 마음을 냈으니까 그 한 부처는 마음 낸 대로 하나로 몰아 줍니다. 하나로 몰아 줘요.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이, 마음을 냈으니까 법으로 따라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수와 부처가 둘이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는 문수가 그냥 부처로 하나가 돼 버리고, 또 생각을 냈을 때는 부처님이 문수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법이 마음을 내는 거라면, 마음을 냈으면 반드시 몸이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보현이라고 합니다.²⁷⁾

26) 『한마음요전』, (2016), 385.

27) 『허공을 걷는 길, 국내지원법회3』(2005), 1421.

부처, 문수, 보현 등 삼불을 무심, 생각, 육신 등 삼합으로 비유한 것은 삼불三佛이 모두 한 부처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삼불은 셋이면서도 동시에 일불一佛이다. 삼불이 일불이 된다는 것은 삼합이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는 말과 다름없고, 이로써 삼합이 주인공 원리로 완성된다.

이것은 순위연동 구조와 달리 각 요소들이 독립적 관계이면서도 한 요소를 중심으로 다른 요소들이 다 함께 하나로 참여하는 삼위일체형 구조다. 즉 생각나기 이전의 근본의 입장에서는 ‘부처’로서 하나로 뭉쳐지고, 한 생각 낼 때는 그 한생각으로 삼합이 되며, 육신이 움직일 때는 그 움직임으로 하나가 된다.

요약하면 주인공 원리의 작용 구조는 근본과 현상의 관계를 모두 수용하면서 통신에 의해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된다. 첫째는 삼합이 순서대로 작용하는 연동구조이고, 둘째는 삼합이 어느 한 요소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지는 삼위일체의 구조다. 그러나 이 두 구조는 별개로 보기 어렵다. 어느 방식이든 모두가 한마음 주인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주인공 원리와 관법이 서로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상관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Ⅲ. 주인공 원리와 관법의 상관 구조

1. 주인공 원리와 주인공 관법

1) 원리와 방편

주인공 원리와 대행선 관법은 원리와 방편의 관계다. 방편은 원리를 바탕으로 그 보편성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고, 원리는 방편을 통해 그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다. 대행은 원리와 방편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므로²⁸⁾ 주인공 원리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수행 방편인 대행선의 관법도 서로 불가분의 관계다.

대행선의 전체구조 속에서 이들의 관계를 비유하자면, 날줄(縱)과 씨줄(橫)의 관계와 같다. 원리가 심층의 근본으로부터 현상의 육신으로 나타나기까지 종(縱)적인 궤적을 그린다면, 관법은 현재 시점에서 주인공을 믿고, 놓고 말기고 지켜보는 횡(橫)적인 구조를 갖는다. 대행선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종(縱)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원리와 방편은 각각의 자리가 안정된다. 예를 들면, 관법에서 말김의 특징을 방편적 입장에서만 보는 것과 그것을 원리적 입장과

28) 『허공을 걷는 길, 법형제법회1』(2001), 512. “질문자2(남):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그 마음공부를 하는데 원리적인 방법과 실천적인 방법은 어떻게 있습니까? 큰스님: 아, 원리적인 방법과 실질적인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원리가 있음으로써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원리가 없는데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었습니까? 원리가 있음으로써 망하게도 할 수가 있고 좋게 되게끔 실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 다스려서 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다면 될 수 있는 거죠.”

더불어 같이 보는 것은 차이가 생기며, 이 차이를 조정하여 결론에 이를 때 말김의 성격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2) 주인공 관법의 근거

현재 대행선 관법으로 거론되는 것은 주인공 관법, 증명관, 묘공 관법 등이 있고, 불이관·일심관·무심관 등을 사심관이라 부르기도 한다.²⁹⁾ 그중에서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간주되는 주인공 관법을 주인공 원리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대행은 주인공 관법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다음의 설법을 통해서 그 방법을 짐작할 수 있다.

거기 과거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인연이 벌어지고 괴로움이 벌어지니까 거기에다 맡겨놔야, 거기다가 입력을 시켜야 자동적으로 거기서 생산이 돼서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거기다 났으면 자동적으로 굴러서 다 여기 먹게끔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놓지를 얹고, 거기다 넣지를 얹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생각대로 소견대로 그냥 방방 뛰고 뭐 죽겠다 살겠다 하고 괜히 그러는 거거든요. 아, 진짜로 믿는다면 거기다 맡겨놓고, 거기서 하게끔 만들어야죠. 그렇게 지켜보고, 나오기를 지켜 보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게 관하는 거

29) 이상호(2019), (2020)

니깐요.³⁰⁾

주인공을 믿고 주인공에 맡겨 놓는 입력의 과정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 결과가 생산되어 나오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켜보는 것을 ‘관觀’이라고 한다. 여기서 믿음, 맡겨 놓음, 지켜보기 등의 요소들이 관의 요소들이 된다. 따라서 주인공을 중심으로 믿고, 놓고, 맡기면서 지켜보는 것을 주인공 관법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를 갖는다.³¹⁾

3) 믿음과 놓음

‘주인공에 대한 믿음’은 삼합의 ‘마음내기 이전’인 주인공과 ‘삼합이 공체로서 공존·공용·공식하는 진면목³²⁾’으로서 주인공에 대하여 믿는 것이다. 따라서 주인공에 대한 믿음은 삼합 그 자체를 믿는 것이나 다름없다.

주인공을 믿는다면, 사랑분별로 인한 번뇌를 주인공에 놓을 수 있다. 그러나 본래는 놓을 것도 없이 놓아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디다 놓느냐? 공췌에다 놓는다. 공췌은 어떤 것이냐? 모든 생명이 같

30)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2』 (1999), 327-328.

31) 김용환외 7(2004), 10. “즉, [믿고, 맡겨 놓고, 지켜보기]로 요약할 수 있는 관법은,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현상은 ‘한마음 원리’에 의해서 나타난 것임을 굳게 믿는 것을 우선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 이상호(2019), 283. “대행선에 나타나는 수행법은 이균희(혜선, 이하 혜선)가 주인공관법을 제기하고, 그 구성 요소를 믿음, 놓음, 맡김, 지켜보기 등으로 주장한 이후, 이 향숙(혜교, 이하 혜교)이 주인공관법을 조건 없는 믿음, 불이관, 일심관, 무심관 등 다른 관점으로 파악하였다.”

32) 『한마음요전』 (2016), 385.

이 돌아가는 곳이 공췌이다. 그러면 나는 빠졌느냐? 나까지 거기 있다. 그렇다면 전체가 공췌이요 나조차도 공췌인데 공췌에다 넣을 것은 어디 있고 뺄 것은 어디 있느냐? 전체가 공췌이라 본래로 놓아진 것이지만 도리를 모르니까 공췌에다 놓으라고 하는 것이다.³³⁾

공에 놓을 때 다시 공에서 한 생각을 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다.³⁴⁾ “지금 이런 시기에는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막 생각 내지 말고, 모든 걸 다 맡겨서 아무 생각이 없을 때에 한 생각을 내라 이거야.”³⁵⁾라고 하므로, 놓음은 삼합에서 마음내기를 위한 조건이 된다. 놓고 나서 마음내기 하는 한 생각은 청정하여 탐진치를 벗어나므로 어디에도 걸림 없이 행할 수 있다. 이는 부자 상봉의 비유에 잘 나타난다.

나는 아주 나이가 어렸을 때 이런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발견을 한 그때서부터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을 했다 하면은 자기가 돼요. 그 자로 인해서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化身이 돼버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달리 생각하지 말고 화신이 아들이라 하면은 아버지는 가만히 무심無心으로 가만히 있을 때에는 부처야.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질 쳐다보면 모두가 아버지로 돌아가,

33) 『한마음 요전』 (2016), 541.

34)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1』 (1999), 383. “너희가 나를 형성시켰고 너희들이 지금 해가는 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잘 리드해 나가야지, 너희들이 형성시킨 몸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움죽거릴 뿐이고 소임을 할 뿐이지, 너희들이 다 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서, 거기다 되놔야 그것은 공테이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5) 『허공을 걷는 길, 범형제법회1』 (2001), 129.

하나로. 가만히 있으면 부쳐요, 생각을 하고 움죽거렸다 하면 바로 아들이다 이거야.³⁶⁾

삼합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버지는 마음내기 이전이고, 아들은 현재의식의 작용인 생각과 그 생각에 따른 육신의 움직임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의 자리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갈 수 있고,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갈 수도 있어서 서로가 ‘하나로’ 된다. 이 하나로 되는 것이 ‘삼합이 하나로 된다’는 것을 뜻하고, 부자 상봉을 의미한다.

‘하나로’ 될 때, 마음내기 이전에 모든 것을 맡겨 놓은 상태로 한 생각을 내는 것이 되므로 그 한 생각은 마음내기 이전의 청정성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들이다.³⁷⁾

4) 맡김

놓음 다음에는 맡김이 있다. 대행은 “죽이든지 살리든지 만들어 놓은 당신께서 알아서 해결하시오!”하고 일체를 톡 맡기는 게 믿음이다.”³⁸⁾ 라거나, “다 형성시킨 주인공한테다가 ‘주인공밖에는 이거 고칠 수 없다.’ 하고 거기가 맡겨야 될 텐데.”³⁹⁾라고 하므로, 맡길 때는 먼저 맡김을 인식한다는 것을

36)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2』 (1999), 96.

37)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3』 (1999), 35. “그러니까 눈을 번연히 뜨고도 쉬는 그런 자체가 돼야 그것이 진짜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는다.’ 그러니까 ‘다 놓고 어떻게 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놓는 겁니다.”

38) 『한마음요전』 (2016), 512.

39)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2』 (1999), 95”

알 수 있다. 맡길 때 일으키는 생각은 현재의식의 작용으로서 삼합에서 볼 때, 마음내기에 해당한다.⁴⁰⁾

현재의식으로 마음내기를 할 때는 현재의식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몸뚱이의 업식으로부터 일어나는 생각을 다스리면서 마음을 내야 한다.⁴¹⁾ 현재의식이 집착 없는 한 생각일 때 무의 생각 또는 무심無心이고,⁴²⁾ 그 무심의 한 생각을 깨달아 가는 과정이 수행이다.

다만, “참 나가 있음으로써 오관을 통해 움직이는 내가 있는 것”⁴³⁾이라고 할 때, 참 나는 오염시킬 수 없는 청정한 자리⁴⁴⁾라는 것은 당연하다. 마음내기 이전의 관점에서는 본래 무심이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것도 붙지 않는다.

40)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법회1』 (2011), 87. “여러분이 물질 아닌 내 주인공과 물질인 나와 둘이 아니게 공존하고 있는 그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는다면 무의 생각, 무심으로 보이지 않는데, 남이 모르는데 생각을 했어도 모두가 이게 현상으로, 바깥으로 내가 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생활이 과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탄 데 가서 찾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41) 『허공을 걷는 길, 국내지원법회2』 (2005), 821. “그러니 내 몸뚱이 속의 업식으로부터 생각이 일어나면 그 마음이라는 놈이 그것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멋대로 몸뚱이가 움죽거리게 놔두는 것은 바로 고삐 풀린 망아지나 소가 콩밭이든 파밭이든 들어가서 막 그냥 짓밟고 먹어치우는 것과 같습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그렇게 누가 되는 일은 삼갈 수 있게끔 자기가 자기를 리드해 나가면서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리게끔 해주는 것은 바로 자기 마음입니다. …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기 마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문을 통해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42)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2』 (1999), 436. “그래서 체가 없는 마음인 줄 알면은 그냥 문도 통과하고 벽도 통과 통과할 텐데 말이죠. 그리고 강도 내가 한생각이면 건너가지. 내 한생각이 무심(無心)인데 어찌 강이 있겠습니까? 강이 없는데 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건널 게 어디 있으며 ‘건넌다 안 건넌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43) 『한마음요전』 (2016), 387.

44) 『한마음요전』 (2016), 344. “불성은 물들지 않는다. 뽕뽕에 들어간 구더기의 몸은 더럽게 물들지만 구더기의 본성은 물들지 않는 것처럼 부처의 본성, 나의 본성, 구더기의 본성인 불성은 물들지 않는다.”

마치 하늘에 아무리 먹구름이 오고 가더라도 하늘 바탕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삼합의 마음내기 관점에서 말김은 놓음과 다른 성격이 있다. 즉 놓음은 마음내기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조건과도 같이 간주되는 반면에, 말김은 의식이 개입되어 마음내기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이 둘은 서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주인공 관법에서 이 두 요소는 각각 필요한 요소다.

말길 때 생기는 공덕을 대행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체를 다 자기 주인공 한군데다 묶어 놓고, 말기고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이 세 가지를 타개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인과에 의한 모든 걸 녹이는 법이요, 둘째는 습을 떼는 법이요, 셋째는 나를 발견하는 법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가정도 편안하고 내 맘도 편안하고, 전부 부지깽이 하나라도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아요.⁴⁵⁾

인과를 녹이거나 습관을 고치는 것 그리고 나를 발견하는 것 등이 모두 마음내기로 주인공에 말김으로써 가능하다. 즉 말김은 일상생활과 수행에 모두 적용시킬 수 있는 수행법이다. 또한 말김은 근본적인 힘으로서 주인공과 의식적으로 말김으로서의 마음내기 그리고 육신의 작용 등이 모두 개입되므로 주인공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⁴⁶⁾

45)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2』 (1999), 256-257.

46)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2』 (1999), 256. “그건 가당치도 않은 말이니깐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있으니깐 그 생각을 그대로 해서 던져놓는 거죠, 그대로 생각해서 놓으면은 그대로 실행이 나와요.”

5) 지켜봄

지켜보기도 주인공 원리와 불가분의 관계다. 대행은 모든 것을 지켜보라고 하므로 적용 범위가 가장 넓다. 물론 놓을 때나 맡길 때도 모든 것을 놓고 맡기지만, 지켜보기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다는 의미는 관하는 그 순간도 지켜보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⁷⁾ “수많은 일을 하는 것을 누가 하고 있는가. 지켜보라. … 한 치도 놓치지 말고 단단히 지켜보라. 생각하기 이전의 그 주체가 대공의 주체이다.”⁴⁸⁾고 하므로 견성이 견성인 줄 알게 되는 자증自證도 어떤 방식으로든 지켜보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나는 학식이 없어서 글을 쓸 줄 몰랐다. 한번은 남들이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는 커다란 숲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는 생각하기를 ‘이건 글자를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아빠가 있거든 아빠가 해 보라.’ 하고 한 나절을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 손이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어떡하나 그것을 지켜본 것이었다.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고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절로 뭔가 써지기 시작했다. 내용을 알 수 없는 글이었다.”⁴⁹⁾

47)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2』(1999), 426. “여러분이 그저 모든 걸 지켜보고 관하라 이랬죠? 응, 그러니 “뭐 지킬 게 있느냐?” 이러지. “지키는 놈은 어떤 거냐?” 이래요, 또 그러는데 그대로 자기가 ‘거기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고 거기 맡겨 놓으면, 맡기는 놈도 그놈이요, 지키는 놈도 그 놈이다 이거야. 지켜봐라 이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또 감응이 되고 실험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체험을 거기서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닦쳐 오면 갖다 놓고 또 하다보면 체험이…”

48) 『한마음요전』(2016), 588.

49) 『한마음요전』(2016), 44.

마음내기 이전인 주인공이 있음을 체험하기 위해 ‘아빠가 해 보라’고 생각한 것이 마음내기라면 ‘저절로 뭔가 써지기 시작’한 것은 육신의 작용이다. 마음내기 후 지켜보기 결과 저절로 ‘뭔가 써지기 시작’한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 것은 지켜보기의 대상에는 육신의 작용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지켜보기는 마음내기 이전, 마음내기, 육신 등 주인공 원리에 따른 삼합의 요소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주인공의 체험까지도 하게 된다.

그건 가당치도 않은 말이니까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있으니까 그 생각을 그대로 해서 던져놓는 거죠, 그대로 생각해서 놓으면은 그대로 실행이 나와요. 이것이 과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자동과학이야. 자동심, 과학.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입니다.⁵⁰⁾

‘생각해서 놓으면 그대로 실행이 나와요’라는 말에서 그것이 자동과학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실증적이라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 실증성은 직접 체험의 결과를 의미한다.

이상에서 주인공 관법의 각 요소들은 삼합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주인공 관법은 주인공 원리에 근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50)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2』(1999), 256.

주인공 원리의 보편성에 따라 주인공 관법도 그 보편성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다.

2. 주인공 원리와 증명관

1) 견성과 증명

일반적으로 선불교에서는 견성을 강조한다. 대행선의 주인공 원리에서는 견성의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생각나기 이전을 믿고 가다가 그것을 깨치면 그때를 이룸하여 견성이라 한다.”⁵¹⁾고 하므로 ‘생각나기 이전’이 본래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인공 원리 그 자체는 견성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견성 여부를 중요한 잣대로 사용하지는 않지만,⁵²⁾ 그렇다고 견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바로 참 나인 주인공으로부터이니 오직 참 나를 찾기에 노력해야 한다.”⁵³⁾고 한다.

때로는 “주인공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을 발견코자 하는 그 속에 있다.”⁵⁴⁾고 단적으로 말하지만, 그 어느 선사들보다 체계적으로 견성관을 제시한다는 점은 대행선의 특징이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세 단계의 과정

51) 『한마음요전』(2016), 647.

52) 『한마음요전』(2016), 584.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하는 관념도 없이 모든 것을 주인공으로 한데 귀결 지어 가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 스승은 자기 한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53) 『한마음요전』(2016), 366.

54) 『한마음요전』(2016), 363.

은 다음과 같다.

그것을 이름해서 ‘삼정지각 불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 그럼으로써 나를 발견해서 보는 단계가 되고, 나를 보는 단계에서는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바로 거기에 또 놓고 가되, 안에서 어떠한 뜻이 오더라도 무엇을 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할 거는 하되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맹종하지는 말라고 한 겁니다. … 셋째 번에는 둘이 아닌 까닭을 알았기 때문에 둘이 아닌 나뉘음을 나뉘다고 했습니다.⁵⁵⁾

삼정지각 불이법은 수행이 견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생명과 둘이 아님을 알고 그렇게 나뉠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도록 한다. 깨달음의 체험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대행선에서는 견성과 같은 맥락에서 증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 반면에 참선이라는 이 자체는 바로, 아까도 얘기했죠. 첫째 주인공만이 주인공이 있다는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증명을 해줌으로써 둘이 아니게 돌아감을 알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들이고 내는 그 능한 도리를 알게 해 줄 것이다 이겁니다. 바로 그렇게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그것을 아는 까닭에, 세 번째는 바로, 둘이 아니게 이 모든 일체 생명과 더불어 같이 나뉘다고 하는 도리가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망상이다, 망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 뇌라

55) 『허공을 걷는 길, 법형제법회1』 (2001), 43-45.

하는 겁니다.⁵⁶⁾

대행선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 그 자체로 주인공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긴다. 대행은 “주인공은 생명의 근본.”⁵⁷⁾이며,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있음으로써 생각을 낼 수 있고, 생각을 낼 수 있음으로써 움직인다. 이보다 더 분명한 증명이 어디 있겠는가.”⁵⁸⁾라고 한다. 육신이 있고, 생각을 하고, 생명이 있다는 그 자체가 주인공을 증명하는 근거이며, 이 삼합을 벗어나 별도의 실체로서 주인공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

증명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기 이전의 근본에 부합’⁵⁹⁾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증명의 체험이 없더라도 주인공 원리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기막힌지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토요일이 되고 일요일이 되면, ‘아, 일요일이 됐으니까 좀 늦게까지 자도 괜찮다.’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폭 자버려요.”⁶⁰⁾ 라는 말에서 마음내기에 의해 육신의 작용이 따르는 것은 이미 마음내기 이전의 근본에 통신이 되어서 부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대행은 주인공에 놓고 말감을 통해 직접 주인공이 있음을 증명하도록 독려했고, 이를 바탕으로 김창언은 증명을 위한 수행법으로서 ‘증명관’을 제

56) 『허공을 걷는 길, 범형제법회1』(2001), 78.

57) 『한마음요전』(2016), 351.

58) 『한마음요전』(2016), 606.

59) 『한마음요전』(2016), 364.

60) 『허공을 걷는 길, 범형제법회1』(2001), 123.

시하였다.⁶¹⁾

2) 삼합과 증명관

대행은 주인공 관법과 마찬가지로 증명관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증명을 위한 관觀’ 수행법을 제시한 것은 분명하므로 그것을 주인공 관법과 구분하여 증명관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앞서서 좌선을 할 때는 그렇게 하죠. ‘주인공만이 주인공이 있다는 증명을 해줄 수 있다.’ 또는 ‘네가 있다는 걸 너만이 증명해 줄 수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관觀’입니다.⁶²⁾

주인공 관법의 본래 목적이 주인공의 증명임에는 분명하지만, 일반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인공과 둘이 아닌 삶을 표방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반해 증명관은 주인공의 증명에 더욱 치중한다는 점에서 표현상 차이가 있지만, 두 관법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가령 일상생활에서는 주인공 관법에 주력하다가 증명을 위한 집중수행 시에는 증명관에 치중하는 것이다.

증명관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삼합의 마음내기 이전, 즉 주인공에 대한 믿음이 강조된다. 그 다음 ‘주인공만이

61) 김창언(청강)(2018), 57-58. “인용문에서 자신의 불성 즉 주인공을 발견하는 관으로서 흔히 ‘증명관’이라고 한다.”

62) 『허공을 걷는 길, 범형제법회1』(2001), 73.

증명을 해줄 수 있다'고 의식하는 것은 삼합의 마음내기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주인공 원리와 관련성을 짐작하게 한다.

증면관이 주인공 원리에 부합하려면 마음내기 다음에는 육신의 작용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좋은 예는 다음에서 엿볼 수 있다.

야, 당신이 있다면 내 손을 들어서 확실하게 있다는 걸 증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걸로 하자.'고 하고선 딱 앉았다 말입니다. 그랬는데 웬 걸요. 꼼짝도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선, 그래도 나는데요. 믿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고 '히! 명령이 되는 모양이지?' 이렇게 하곤 고만됐어요. 그랬는데 막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냥 별안간에 이 팔이 말입니다. 그냥 공중제비로 올라가는 (오른손을 서서히 들어 보이시고) 겁니다. 그러니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⁶³⁾

마음내기 이전인 주인공을 증명하려고 '내 손을 들어라'고 마음내기 한 이후 지켜보는 와중에 '별안간에 팔이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은 마음내기와 육신의 작용이 연동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증명관에서 믿고 맡기는 마음내기에 의해 육신의 작용에 이르게 된 것은 주인공 원리에 부합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주인공 원리는 대행의 체험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 사례를 더 든다면, 대행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니까 '증명을 해주는 게 주인공, 그 한마음 주인공밖에 없다. 그러

63)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3』(1999), 474.

니까 거기에서만이 나를 증명해 줄 거다. 당신이 있다면 증명하라.’ 하구
선, ‘손을 움주그리든지, 고개를 움주그리든지 맘대로 증명해 보라!’ 할 때
그때에 자기가 증명할 수 있는 거야. 그때는 완전히 중심의 아하, 고 조
그만 거 하나 때문에 전체를 믿게 돼. 전체를 믿게 돼. 이걸 믿지 않으
면, 증명을 못하면 믿질 못해. 아무리 저거해도.⁶⁴⁾

손이나 고개가 움직이는 것과 같이 육신의 작용이 일어날 때 심리적 조건
은 무심無心이다. 일부러 팔을 들려고 의식할 때는 그 심리 작용이 오히려 걸
림돌이 될 수 있다. 팔을 들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팔이 들리지 않을 때 느껴
지는 당혹감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팽팽한 긴장 관계가 오히려 팔이 들
리는 것을 방해한다. 그래서 놓을 필요가 있다. “일체를 다 놓고 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무심이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에 무심이니까 오히려 다 풀리
게 된다. … 반면에 경계를 붙들고 놓지 않는다면 우선 내가 움직일 수가 없
으니 전체를 움직이지도 못한다.”⁶⁵⁾ 고 하는 이유다.

이상에서 주인공 원리와 증명관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 주인공 원리가 증
명관의 근거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증명관은 주인공을
믿고 증명을 위한 마음내기에 의해 육신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면
서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64) 김창언(청강)(2019), 녹취자료, <담선>(1990.3.25.). 재인용.

65) 『한마음요전』(2016), 614.

IV. 결론

주인공 원리는 생명의 근원, 마음, 육신 등이 삼합이 되어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리는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편성을 갖고 있다.

이 원리의 작용 구조는 정적인 부동의 근원적인 측면과 아울러 삼합이 함께 공존하면서 통신하여 작용하는 동적인 현상적 측면도 포함한다. 이때 주인공 원리는 마음내기 이전에서 마음내기로 이어지고 육신에 이르는 순서로 작용하는 순위연동형 구조를 갖는다. 그뿐만 아니라 삼합이 어느 한 요소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지는 삼위일체 형 구조도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유형을 별개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둘 다 한마음 주인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주인공 원리가 대행선 수행법의 근거로서 관법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면, 일상생활에서 주인공 원리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편이 관법이라는 점에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행선 관법의 대표적인 수행법은 주인공을 믿고, 주인공에 놓고, 맡기고, 지켜보는 주인공 관법이다. 주인공에 대한 믿음은 마음내기 이전이 주인공 원리에 정의되어 있으므로 그 근거를 확보하고, 원리적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방편으로 우선 믿음을 활용하므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선불교의 일반적인 입장에서 깨달음을 먼저 강조하는 반면에, 대행선의 주

인공 원리에서는 마음내기 이전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이것에 대한 믿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 깨달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의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우선 강조하더라도 손쉽게 수행체계로 들어갈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주인공을 믿고 놓는 것은 원리상 마음내기 이전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법의 놓음은 원리적 근거를 확보한다. 놓음은 공췌에 놓음으로써 공에서 다시 한 생각을 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므로 원리상 마음내기를 위한 조건이 된다. 이와 동시에 마음내기를 활용하는 말김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놓지 않고 말기는 것은 번뇌에 번뇌를 더할 뿐이다.

말김은 관법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원리적 측면의 마음내기에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 관법의 관점에서는 놓음과 혼용되거나 또는 생략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리적 관점에서 말김은 놓음과는 다른 성격이 있으므로 생략할 수 없다. 말길 때는 먼저 말기려는 현재의식의 작용이 개입되고, 현재의식의 작용은 곧 마음내기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놓음과는 구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놓기 위해서 놓으려는 의식이 발동한다면 그 자체가 놓음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의식의 개입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놓음과 말김은 그 성격상 차이가 생긴다.

원리상으로 볼 때 마음내기는 육신의 작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음내기를 활용하는 말김도 육신의 작용까지 그 범위가 확장된다.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관법의 지켜보기다.

따라서 지켜보기의 영역에는 주인공 원리의 전 과정인 마음내기 이전, 마음내기, 육신 등 세 요소가 모두 포함된다. 마음내기 이전을 지켜본다는 것은 주인공의 증명을 체험하는 순간을 지켜본다는 의미가 된다. 물론 마음을

내고 육신을 움직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주인공을 증명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상에서 주인공 관법의 각 요소들은 주인공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역으로 이 원리는 주인공 관법 수행의 방법과 구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주인공 원리는 삼합이 한마음으로 돌아감으로써 완성되듯이 주인공 관법도 모든 요소가 한마음으로 돌아감으로써 성립될 수 있고, 그 결과는 주인공에 대한 증명의 체험이 될 것이다.

주인공 원리에 따르면, 증명은 원리상에서 마음내기에 의한 육신의 작용을 통해서 확인되므로 단순히 믿음에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에 이르는 곳까지 나아가야 의의가 있다.

증명을 위한 관법으로 설정된 증명관은 주인공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주인공만이 증명을 해줄 수 있다'고 믿는데, 이때 믿김은 삼합의 마음내기를 활용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육신의 작용이 나타나기까지 지켜보면서 증명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증명과 증명관은 전체적으로 주인공 원리를 기반으로 그 정당성이 담보되므로 원리와 증명 및 증명관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주인공 관법과 증명관은 개별적으로는 표면상 서로 다른 관법처럼 보이지만, 주인공 원리의 관점에서는, 다 같이 믿음과 마음내기 그리고 지켜보기를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때 놓음이 증명관에서는 표현되지 않더라도 증명을 위한 마음내기를 할 때 먼저 선행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먼저 놓지 않으면 마음내기가 번뇌에 번뇌를 더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인공 원리의 관점에서는 주인공 관법과 증명관은 모두 동일한 방

법을 활용하는 관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주인공 관법과 증명관 모두 증명이 기본적인 목표가 되지만, 주인공 관법은 생활을 강조하는 반면에, 증명관은 주인공의 증명에 치중하므로 수행 상에서 보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므로 생활 중심에서는 주인공 관법, 수행 중심으로는 증명관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서로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주인공 원리는 주인공 관법과 증명관을 통해 방편상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갖는다. 주인공 관법은 생활에 치중하면서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닌 입장에서 주인공 원리를 실현하고, 증명관을 통해서서는 증명에 치중하면서 수행과 생활이 둘이 아닌 입장에서 주인공 원리를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이상에서 주인공 원리는 수행법인 관법의 근거를 확보해주면서 그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고, 역으로 관법은 주인공 원리를 현실에서 구체화시키는 방법으로 나타나므로 서로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주인공 원리는 대행선 사상의 전반을 관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로서 개개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로서 성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마음내기 이전]과 현상[육신의 작용] 간의 불이不二적 관계를, 단순하지만 체계적으로 일반화시킨다. 이러한 주인공 원리의 보편성과 일반성에서 대행선의 독창성을 엿볼 수 있다.

주인공의 원리와 관법들은 대행선의 사상적 구조와 체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 골격이므로 이들의 상관 구조를 토대로 대행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특징을 제시한다면, ‘일원다관—原多觀의 선법禪法’이다. 즉, 하나의 주인공 원리를 토대로 여러 관법 수행체계를 갖춘 선수행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의는 매우 평범하고 단순하지만 명확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나타내므로

이것을 기반으로 사상적 확장과 체계화를 통해 대행선의 정체성을 정립시켜 나가는데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한마음요전』 (2016), (재)한마음선원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2』 (1999), (재)한마음선원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3』 (1999), (재)한마음선원

『허공을 걷는 길, 법형제법회1』 (2001), (재)한마음선원

『허공을 걷는 길, 국내지원법회2』 (2005), (재)한마음선원

『허공을 걷는 길, 국내지원법회3』 (2005), (재)한마음선원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법회1』 (2011), (재)한마음선원

『허공을 걷는 길 국외지원법회3』 (2011), (재)한마음선원

김호귀(2019), 「대행선 수증관의 구조와 원리」, 『한마음연구』2, 대행선연구원

김창언(청강)(2018), 「대행의 관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_____ (2019), 「대행의 증명관(證明觀) 고찰」, 『禪學』53.

이상호(2019), 「대행선관법의 체계에 대한 고찰(1)」, 『한마음연구』3, 대행선연
구원

_____ (2020), 「대행선관법의 체계에 대한 고찰(2)」, 『한마음연구』4, 대행선연
구원

김용환외 7(2004), 「한마음과학: 대행선사의 과학관」, 한마음과학원

[https://m.hansi.org/lab/hansi_detail.do;jsessionid=70B466C5B100284594ABEB96681D3354?contents_item_id=67(2023.08.18.)]

“주인공 원리와 관법의 상관 구조 고찰”에 대한 논평문

윤종갑(동아대 초빙교수)

부산대 철학과 대학원에서 『용수의 연기설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경대 박사후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동경대학교 외국인연구원, 동아대 교수를
지냈다. 『공과 실재, 그리고 깨달음』, 『한국불교사상의 특징』 등의 저서와 다수
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현재 동아대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본 논문은 대행선의 차별화된 정체성 확립을 위해 대행선의 독창적인 원리와 수행법의 상관관계를 고찰한 연구이다. 발표자는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그간 대행선 연구는 수증론을 중심으로, 불성론에서는 한마음과 주인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고, 수행론에서는 주인공 관법과 그 외 증명관·불이관·일심관·무심관·사심관·대행선관법·묘공관법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관법들이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대행선의 원리적 측면에서 연구 경향은 한마음 주인공 등 불성론 중심으로 다루어져 전체 사상적인 맥락에서 체계적인 원리 분석 연구가 양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결과 아직까지 “관법 연구도 대행선 사상의 원리적 측면과 수행론적 입장을 비교 분석한 입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무엇을 원리로 삼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조차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진리적 측면에서” 대행선의 고유한 독창적인 원리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 목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발표자는 자신이 제시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마음요전』 ‘원리’ 편에서 ‘마음내기 이전’과 ‘마음내기’ 그리고 ‘육신’이 서로 합해지는 ‘삼합’이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대행선의 대표적인 원리로 내세워, 이 삼합의 원리가 대행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최고의 원리임을 본 논문을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주인공 원리가 어떻게 성립하고 보편성을 갖는지, 그 작용 구조에 대해 2장에서 살펴보고 이어서 제3장에서는 주인공 원리와 주인공 관법 및 증명관 등의 요소들과 비교 분석하고 있다. 삼합의 원리를 주인공 원리로 정립하여 주인공 관법과 증명관 등의 요소 전체를 총괄적으로 수용하는 하나의 통일적 원리를 정립하려는 것이다.

논평자는 대행선의 고유한 독창적인 원리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발표자의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에 충분히 공감하며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한다. 어떠한 사상이든 그 사상이 텍스트와 일부의 해석에 갇혀 있을 때 그 본래의 뜻과 가르침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제약과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대와 학파(종파)에 따른 새로운 논쟁과 해석의 사상사이며 이로 인해 더욱 풍부해지고 체계화 되어 왔음을 상기한다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대행선의 원리를 정립하려는 발표자의 시도는 대행선을 새롭게 인식하고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논문의 핵심은 대행선의 보편적인 원리를 정립하기 위해 삼합의 원리가 주인공 원리의 구조와 부합하며 주인공 관법에도 적합한 것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예컨대 생명, 마음, 육신 등 삼합이 주인공 원리에 그대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의 내용이 삼합의 원리가 주인공 원리와 관법의 기본 구조와 근거가 되고 있음을 밝혀내려는 것이다.

삼합의 원리가 주인공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고 있으며, 근본과 현상을 불이적으로 파악하는 구조로서 순위연동형과 삼위일체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삼합의 원리가 주인공 원리와 관법의 방편과 근거가 되고 있음을 믿음과 놓음, 맡김, 지켜봄을 적용하여 살펴보고 깨달음에서의 견성이 주인공에서의 증명관을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삼합의 원리를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논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삼합의 원리를 주인공 원리에 적용하여 구조적으로 살펴본 제2장은 “주인공 원리의 작용 구조는 근본과 현상의 관계를 모두 수용하면서 통신에 의해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된다. 첫째는 삼합이

순서대로 작용하는 연동구조이고, 둘째는 삼합이 어느 한 요소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지는 삼위일체의 구조다. 그러나 이 두 구조는 별개로 보기 어렵다. 어느 방식이든 모두가 한마음 주인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삼합의 원리 구조가 주인공 원리의 작용 구조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주인공 원리와 관법의 상관 구조에 대해 분석한 제3장의 핵심 내용은 “주인공 관법의 각 요소들은 삼합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주인공 관법은 주인공 원리에 근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인공 원리의 보편성에 따라 주인공 관법도 그 보편성이 성립”하며 삼합의 원리와 일치하는 “주인공 원리가 증명관의 근거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증명관은 주인공을 믿고 증명을 위한 마음내기에 의해 육신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증명하는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의 핵심 주제는 삼합의 원리가 주인공 원리와 관법의 기본원리가 된다는 것이다.

발표자는 본 논문에서 주인공 원리와 관법에 대한 보다 보편적이고 일관된 원리를 정립하기 위해 삼합의 원리에 근거해 주인공 원리와 관법을 총괄적으로 분석하며 그 독자성과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고자 한다. 논평자 역시 이러한 발표자의 취지에 공감하며 논의의 확장을 위해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발표자는 삼합의 원리에 근거하여 주인공 원리와 관법을 일괄적으로 체계화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괄적인 체계가 오히려 주인공 원리와 관법을 제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발표자는 본 연구의 목적으로서 주인공 원리와 관법에 대한 독자적이고 일관된 원리가 아직까지도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수행법과 차별화된

대행선의 독창적인 원리와 수행법의 체계화”를 위해 삼합의 원리에 근거한 보편적인 원리를 정립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주인공 원리와 관법이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 규정은 하나로 명확해지지만, 그 규정 이외의 모든 논의와 해석의 길을 차단될 수 있는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이 하나의 규정으로 제약할 수 없는 연기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오히려 폐쇄성과 독단성을 초월한 개방성과 유연성을 지닐 수 있듯이 주인공 원리와 관법을 삼합의 원리에 의해서만 일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인공 원리와 관법을 오히려 제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자면 발표자가 비판적으로 고찰한 김호귀의 ‘삼각원형 三角圓形의 원리’와 한마음과학원의 학술 발표 자료(『한마음과학: 대행스님의 과학관』)는 삼합의 원리로서 주인공 원리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닌 주인공 원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원리로서 삼합을 예로 든 것으로 주인공 원리와 관법의 원융함을 보여 주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논평자는 주인공 원리와 관법을 특정 원리 하나로서 굳이 못 박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한마음요전』에서 삼합의 비유를 든 첫 번째 목적은 ‘생명의 실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 주인공 원리와 관법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합의 원리로서 주인공 원리와 관법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확립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 있듯이 삼합에 의해 주인공의 원리와 관법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는 있다. 그런데 어떤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하여 그 설명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리편에서의 삼합은 나의 실상을 밝히는 하

나의 비유, 설명으로서 나타나고 있으며, 나라는 존재, 즉 인간은 “생명과 마음과 육신”이 함께 어우러진 존재라는 것이다. 생명과 마음과 육신을 지닌 삼합의 존재는 당연히 주인공이 작용하는 ‘참 나’의 실상이다. 다시 말해 삼합의 비유는 주인공인 참 나의 실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설명 내지 원리이지, 주인공의 원리와 관법을 총괄하는 원리로서 내세우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셋째, 삼합의 원리와 한마음의 원리, 그리고 주인공 원리가 서로 구분할 수 없는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주인공 원리와 주인공 관법에서의 견성과 수행의 관점에서 보다 명확하게 밝혔으면 한다.

발표자는 “영원한 생명과 마음과 육신이 삼각으로 둥글게 돌아서 인간을 이룬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인간의 보편적인 구성요소가 영원한 생명·마음·육신 등 세 가지이고,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생명, 마음, 육신 등 삼합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주인공 원리는 보편적인 원리”라고 한다. 또 그러한 보편적인 주인공 원리가 믿고, 놓고 맡기고 지켜보는 주인공 관법에도 연관되고 적용되기 때문에 “주인공 원리의 보편성에 따라 주인공 관법도 그 보편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주인공 원리와 증명관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 주인공 원리가 증명관의 근거로 성립”하며 “주인공을 믿고 증명을 위한 마음내기에 의해 육신의 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편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한다. 다시 말해 삼합의 원리는 주인공의 원리와 관법(증명)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한 성격의 보편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단지 중생이 불성을 지닌 존재라는 이유로 부처라고 하지 않듯이 삼합의 원리가 주인공 원리

에 적용된다고 하여 주인공 원리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단적으로 말해 삼합의 원리의 초점은 생명의 실상을 밝히는 데 있으며, 주인공 원리는 이를 기점으로 ‘깨달음의 주인공인 참 나’를 추구하는 데 초점이 주어져 있어 동일한 원리로서 간주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주인공 관법은 단순한 원리라기보다는 실제 수행을 통한 실천적·체험적 증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지 삼합의 원리로서 그 수증론 전체를 밝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발표자는 기존의 대행선 연구가 “수증론을 중심으로, 불성론에서는 한마음과 주인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고, 수행론에서는 주인공 관법과 그 외 증명관·불이관·일심관·무심관·사심관·대행선관법·묘공관법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관법들”에 관한 것임을 제시하며, 본 연구는 이러한 여러 명칭과 요소들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을 방지하고 대행선의 독자적인 일관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대행선 연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주인공 원리와 관법에 대한 선행 연구의 장단점이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 단지 삼합의 원리와 관련해 김호귀와 한마음과학원의 학술 자료에 그치고 있다.

발표자가 언급하였듯이 대행선의 수증론과 불성론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매우 다양한 시각에서 다채로운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행선의 핵심이 되는 주인공 원리와 관법에 대한 새로운 원리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발표된 대표적인 연구를 검토하여 그 현황과 한계를 분명히 밝혀 본 논문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본 논문의 독자성과 그 의의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며 연구 목적도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다시 말

해 대행선의 주인공 원리와 관법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전면 부정 내지 무시하기보다는 그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타당한 관점은 새로운 논의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 더 심화하고 체계화할 때, 대행선이라는 하나의 학문과 학통이 보편적이고 엄밀한 학學으로서 정립될 것이다.

“주인공 원리와 관법의 상관 구조 고찰”을 읽고

최원섭(대행선연구원 연구원)

동국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철선사상연구원 전임연구원, 금강대학교 HK 교수, 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등을 지냈다. 「영상 미디어의 불교 주제 구현 연구」(2014), 「방송 매개 전법을 위한 불교 콘텐츠 구성 방향」(2017), 「미래 한국불교를 위한 묘공대행의 생애와 사상 재조명 : 탄신 100주년 전시회를 가정하여」(2022), 「드라마를 통한 불교적 마음치유 : 불교의 눈으로 드라마 〈나의 아저씨〉 읽기」(2022) 등이 있다. 불교의 눈으로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불교적 비평이론을 정립하고 있다.

1.

이 글은 대행선의 독창적인 원리와 수행법을 체계화하기 위해, 원리로서 ‘주인공 원리’를 제시하고 수행법으로서 ‘주인공 관법’과 ‘증명관’을 거론하여 원리와 수행법 사이의 상관 구조를 밝힌 것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이미 다양한 글들¹⁾을 통해 대행선의 이론 정립을 해오신 대행선의 전문가이시고, 논평자는 이제 막 연구원으로서 대행스님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논평이라기보다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몇 가지 여쭙는 것으로 논평을 대신합니다.

2.

1) 발표자는 “서론”에서 그간의 연구 성과를 평가하면서 “그간 대행선 연구는 수증론을 중심으로, 불성론에서는 한마음과 주인공을 대상으로 이루

-
- 1) 이상호(2017), 「간화선의 관점에서 대행선에 대한 고찰 : 『한마음 요전』을 중심으로」, 제 2회 한마음학술대회.
이상호(2018), 「대행의 의정과 생수불이」, 『의정疑情의 이원화와 통합을 활용한 생수선 생修禪 정립定立 방안 연구 : 대중적인 간화선 수행법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
이상호(2019), 「대행선관법의 체계에 대한 고찰(1)」, 『한마음연구』3, 대행선연구원.
이상호(2020), 「대행선관법의 체계에 대한 고찰(2)」, 『한마음연구』4, 대행선연구원.
이상호(2022), 「임제선과 대행선의 비교를 통한 회통성 : 대행선, 회귀回歸인가? 회통會通인가?」, 『한마음연구』9, 대행선연구원.

어져 왔고, 수행론에서는 주인공 관법과 그 외 증명관·불이관·일심관·무심관·사심관·대행선관법·묘공관법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관법들이 연구대상이 되었다.”고 하고 “이상호(2019), 277-338.; 이상호(2020), 261-302. 참조”라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수증론을 중심으로 불성론과 수행론이 연구되었다는 설명은 이상호(2022), 「임제선과 대행선의 비교를 통한 회통성 : 대행선, 회귀回歸인가? 회통會通인가?」의 목차에서 온 것입니다. 이상호(2022)의 목차 중 ‘Ⅲ. 대행선의 수증론’ 아래에 ‘1. 불성론’과 ‘2. 수행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주에 표시된 문헌 역시도 발표자의 글들뿐입니다. 물론 대행선의 이론 정립은 주로 발표자께서 하셨기 때문에 문헌이 제한적이겠지만, 발표자의 글과 논리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작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다른 연구도 언급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대표적으로 ‘증명관’은 발표자도 밝히셨듯이 ‘김창언(창강)(2018)’에서 제시한 개념인데도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는 것은 좀 의문이었습니다.

2) 위의 언급에서 발표자는 “주인공 관법과 그 외 증명관·불이관·일심관·무심관·사심관·대행선관법·묘공관법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관법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각주에 밝힌 이상호(2019), 「대행선관법의 체계에 대한 고찰(1)」에서는 ‘주인공관법의 내적 전개 과정’을 설명하면서 ‘무심수행과 일심수행’을 거론하기 때문에 ‘주인공관법’ 안에 ‘무심수행과 일심수행’ 즉 ‘사심관’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상호(2020), 「대행선관법의 체계에 대한 고찰(2)」에는 “대행선사는 주인공관법이나 증명관 외에도 놓는 관, 둘 아닌 관, 일심관一心觀, 무심관無心觀, 등 4가지 관觀을 말한다”(267쪽)고

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 4관을 사심관법四心觀法이라고 통칭하여 명명命名하기로 한다”(268쪽)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불이관과 일심관과 무심관은 사심관과 병렬이 아니라 사심관 안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더 나아가 “대행선관법은 전체적으로 ‘3관법三觀法, 6관六觀, 11요소十一要素, 7단계七段階, 3오三悟’로 그 체계를 세울 수 있다”(262쪽)고 하여 대단히 많은 개념어들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발표자의 여러 글에서 맥락이나 범주가 다른 것처럼 보이는 설명이 있다 보니 논평자와 같은 초학들이 보기에는, 발표자가 체계화시키는 ‘대행선관법’의 큰 틀에서 다양한 관법들이 병렬적으로 설명되는지, 아니면 ‘대행선관법’ 아래에 다시 조금은 포괄적인 개념 아래에 다양한 관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3.

1) ‘Ⅱ. 주인공 원리의 성립’의 ‘1. 주인공 원리의 보편성’에서 발표자는 대행선의 독창적인 원리를 ‘삼합의 원리’나 ‘한마음원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행스님이 직접 언급한 ‘주인공 원리’라는 용어로 통일하자는 제안을 하며, “주인공 원리는 개개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생명·생각·육신 등 기본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다. ... 사람이란 예외 없이 생명, 마음, 육신 등 삼합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는 주인공 원리는 보편적인 원리로서 성격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로 끝을 맺습니다. ‘2. 주인공 원리의 작용 구조’에서는 “주인공 원리는 비단 한 사

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 공체, 공식하는 전체로 통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주인공 원리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요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라는 설명은 설득하기에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누구나 생명과 생각과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성이 성립한다면 주인공 원리뿐만 아니라 그 어느 것을 가져와도 성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Ⅱ. 주인공 원리의 성립’의 ‘2. 주인공 원리의 작용 구조’에서 ‘순위연동형 구조와 ‘삼위일체형 구조’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발표자는 이것을 구별하여 “주인공 원리의 작용 구조는 근본과 현상의 관계를 모두 수용하면서 통신에 의해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된다. 첫째는 삼합이 순서대로 작용하는 연동 구조이고, 둘째는 삼합이 어느 한 요소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지는 삼위일체의 구조다.”라고 하고는 곧바로 “그러나 이 두 구조는 별개로 보기 어렵다. 어느 방식이든 모두가 한마음 주인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발표문의 꽤 많은 부분에서 지금처럼 구별하였다가 통합하는 서술이 보이는데 계속 드는 생각은 대행스님의 의도는 구별이었을까, 통합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대행스님의 의도가 이것을 구별하는 데에 있지 않다면 주인공 원리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3) 한마음과학원에서 2004년도에 주최한 국제학술회 발표 자료인 「한마음과학: 대행스님의 과학관」의 출처를 인터넷으로 밝히셨는데, 이 출처에는 이 자료만 파일로 있으므로 정확한 출처라고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원래의 자료집을 출처로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4.

1) ‘Ⅲ. 주인공 원리와 관법의 상관 구조’의 ‘1. 주인공 원리와 주인공 관법’의 첫 문장은 “주인공 원리와 대행선 관법은 원리와 방편의 관계다.”입니다. 그리고 ‘Ⅳ. 결론’에서는 “주인공의 원리와 관법들은 대행선의 사상적 구조와 체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 골격이므로 이들의 상관 구조를 토대로 대행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특징을 제시한다면, ‘일원다관—原多觀의 선법禪法’이다. 즉, 하나의 주인공 원리를 토대로 여러 관법 수행체계를 갖춘 선수행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 ‘방편’이라는 말 때문에 주인공 원리 한 가지를 바탕으로 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맞게 다양하게 펼쳐지는 관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3관법三觀法, 6관六觀, 11요소十一要素, 7단계七段階, 3오三悟’의 체계를 갖는 대행선관법은 누구나 이것을 다 닦는 체계인지, 나에게 맞는 방편으로서 한 가지만 닦는 체계인지가 궁금해집니다.

2) ‘2. 주인공 원리와 증명관’에서 발표자는 “대행선에서는 견성과 같은 맥락에서 증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주인공 관법의 본래 목적이 주인공의 증명임에는 분명하지만, 일반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인공과 둘이 아닌 삶을 표방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반해 증명관은 주인공의 증명에 더욱 치중한다는 점에서 표현상 차이가 있지만, 두 관법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가령 일상생활에서는 주인공 관법에 주력하다가 증명을 위한 집중수행 시에는 증명관에 치중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상호(2019), 「대행선관법의 체계에 대한 고찰(1)」에서는 이 둘을 시차적으로 수행하여 “평시 생활 속에서는 주인공 관법을 수행하고, 아침저녁으로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좌선을 할 때 증명관을 병행한다.”거나 “처음 입문자에게는 일상생활이 우선이므로 먼저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경계를 만날 때 주인공 관법을 하도록 하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보다 전문적으로 주인공 발현에 집중하는 증명관을 활용한다.”는 등의 예를 들며 “두 가지를 다 섭렵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언제나 지금 여기 주어진 상황에서 일상생활을 적극적으로 영위하는 입장에서는 주인공 관법이 효과적이고, 주인공 발현이라는 증명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는 증명관이 더욱 매력적일 수 있다.”(324쪽)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인공 관법은 견성이나 증명과는 관계가 없는 관법인가, 아니면 주인공 관법은 견성을 위한 것이고 증명관은 증명을 위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주인공 관법을 일상생활에 초점을 두고 증명관을 전문적인 좌선에 초점을 두는 설명은 문득 “태어남이 불佛이고 삶이 敎敎”라는 대행스님의 말씀에 따라 누구나 마음공부를 할 수 있고 삶 자체가 참선이라는 한마음선원의 정체성과 부합하는 것인지 여쭙게 됩니다.

3) ‘2. 주인공 원리와 증명관’에서 ‘삼정지각 불이법’이라는 법문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자를 알려주시면 이 말을 쉽게 이해할 듯합니다.

5.

대행스님은 일상의 언어로 쉽게 법문을 하셨고 법어집 역시 구어체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쉬운 법문을 학문의 이름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다소 어려워지는 느낌입니다.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불교학은 없을까 하는 반성과 고민을 하나 더 안으며 논평을 마칩니다.

참으로 자기 근본을 믿는 마음은
나라는 아짐을 놓여버리는 마음이다

- 대항선사 법어 -

